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슬반 유아들의 또래 경쟁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유아교육학과

박지현

2005

이슬반 유아들의 또래 경쟁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6月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유아교육학과 박 지 현

박지현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指導教授	<u>홍 용 희</u>	_____
審査委員	<u>엄 정 애</u>	_____
	<u>김 희 진</u>	_____
	<u>서 소 정</u>	_____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목 차

논문개요	vii
I.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B. 연구문제	4
C. 연구자	4
II. 이론적 배경	7
A. 또래 관계	7
B. 또래간의 경쟁	10
1. 또래간 경쟁	10
2. 또래간 경쟁의 내용	15
3. 또래간 경쟁 전략	18
III. 연구방법	22
A. 문화 기술적 연구방법	22
B. 연구대상	23
C. 연구절차	31
IV. 이슬반의 또래경쟁 내용	36
A. 능력	36
B. 소유권	41
C. 경험	45
D. 소유량	48

E. 재미·흥미 추구	50
F. 애정	52
G. 참여기회	54
H. 인기있는 역할	56
I. 인정	58
V. 이슬반의 또래 경쟁 전략	61
A. 대결	61
B. 협박적 언행	71
C. 과장된 언행	77
D. 물리적 힘 행사	79
E. 설득	81
F. 속임수 사용	84
G. 협력	86
VI. 논의 및 결론	91
A. 논의	91
B. 결론 및 제언	99
<참고문헌>	103
<부록>	112
<ABSTRACT>	113

표 목 차

<표- 1> 이슬반 유아들의 하루 일과표	30
------------------------------	----

논문 개요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의 또래간 경쟁의 다양한 양상과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만 5세반 유아들을 대상으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한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을 사용해 또래 간에 나타나는 경쟁의 내용 및 경쟁 목표 달성을 위한 해결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결 어린이집 이슬반의 또래간 경쟁의 내용은 무엇인가?
2. 아결 어린이집 이슬반 유아들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서울시 G구에 위치하고 있는 아결 어린이집의 만 5세 학급에서 이루어졌으며, 연구대상은 이슬반의 유아 42명과 교사 2명이었다. 예비관찰은 2003년 7월 11일부터 2003년 7월 16일까지 3회의 참여관찰이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3년 7월 18일부터 2003년 9월 29일까지 총 30회 이루어졌다. 교사와는 총 3회의 형식적인 면담을 하였고, 비형식적인 면담은 수시로 행해졌다.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 현장약기(field notes), 녹음과 비디오 테이핑을 하여 전사본을 작성 하였고, 전사본과 현장약기로 현장기록을 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어린이집과 학급 운영에 관련된 문서와 관련 자료 수집은 관찰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또한 관찰을 하면서 관찰자 일지를 기록하여 연구자 스스로 반성하고 다음 관찰을 위한 방향을 계획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사례들은 Bogdan과 Biklen(1982)이 제시 한대로 부호화하고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슬반의 또래 경쟁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자신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또래들과 능력, 소유권, 경험, 소유량, 재미·흥미 추구, 애정, 참여기회, 인기있는 역할, 인정의 내용으로 경쟁을 일으켰다. 사물과 같은 물질자원, 기회나 역할과 같은 비물질 자원, 애정이나 인정과 같은 정서적 자원 등의 제한된 자원을 두고 이를 획득하고자 하는 목표와 우월의 욕구, 열등감 보상, 비교를 통한 상대적 만족감 등의 다양한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표 사이에서 복합적인 내용으로 유아들의 경쟁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제한된 환경이 맞물려 일어나기도 하고, 비교심리와 같은 사회적 심리가 반영된 내용으로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이슬반의 또래 간 경쟁에서 자신의 목표를 획득하고자 사용된 전략은 총 12가지 유형이 관찰되었는데, 그 성격에 따라 대결, 협박적 언행, 과장된 언행, 물리적 힘 행사, 설득, 속임수 사용, 협력하기 전략의 7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유아들의 경쟁전략 사용범위는 경쟁목표, 욕구의 정도, 조망수용과 같은 인지능력, 상황판단 능력, 상호작용기술과 같은 사회적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전략사용은 경쟁의 내용과 결과 그리고 상호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유아들은 경쟁상황에서 한 가지 전략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사용하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상황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전략을 단계적으로도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이 한 인간으로 생존하고, 정체성 확립 및 건전한 성격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타인이 필요하다(Swensen, 1973). 그리고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대인관계의 경험을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상호작용을 시작하게 되는데 점차 성장함에 따라 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사회적 초점이 가족으로부터 가까운 성인이나 또래로 이동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 및 가정생활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유아들이 과거보다 더 일찍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조직화된 또래집단에 참여하게 되었고, 교육기관의 확대와 교육시간의 연장 등으로 인해 유아들은 또래들과 보내는 시간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유아들의 발달에 또래가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상호작용에 대해 조명하는 것은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Hartup(1977)은 동등한 격인 또래들과의 접촉기회가 없으면 유아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신들의 공격적인 행동을 조절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학습하기 어려우며, 사회도덕적인 가치를 형성하고 성적으로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또래관계는 대등한 관계로서 자율적인 사회적 기술 및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신과 같은 혹은 다른 많은 관점들이 있음을 알게 해주어 자기중심성을 극복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러한 또래관계에서 유아는 종종 경쟁상황을 접하게 되는데, 같은 공간과

같은 자원을 공유하다보니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또는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겨루게 되며, 친구나 교사 등의 인간관계 또한 공유하다보니 그 속에서 더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또래는 능력이나 발달 수준이 비슷하므로 적절한 비교상대가 되어 경쟁심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Charlesworth(1993)는 경쟁을 유전적 기초를 지닌 인간의 보편적인 행위로 보고 유아기에는 문화적 영향이 비교적 적게 작용하므로 다른 문화 간에 차이가 없음을 주장한다. 반면, 문화 간 비교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경쟁하는 경향은 유아기에도 사회적, 문화적 가치에 따라 서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제시한다(Kagan & Madsen, 1972; Madsen, 1971). 즉, 경쟁은 생물적 요인과 학습·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유아들의 또래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의 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쟁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상호 배타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하므로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 상대방이 실패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서 오는 이기적이고 적대적인 태도, 상호간의 불신감 등이 관계를 저해하며 승패의 결과에 따라 자신에게도 불안감, 무능감, 자기불신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Pinar(1975)는 유아들에게 지나친 경쟁심을 자극하는 것은 자신을 타인에게 빼앗기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도록 이끌게 된다고 주장한다(임성혜·손영수, 2001, 재인용). 즉, 활동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승부에 집착을 하게 되고, 순수한 자기 발전보다는 타인과의 비교에 의한 만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시각을 인정하면서도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기보다는 경쟁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의견도 볼 수 있다. 즉, 생활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경쟁상황을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경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경쟁이 전투적인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다. 올바른 경쟁은 자기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되며 사회, 인지, 정서, 도덕 발달에도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옴으로

써 효율적인 사회생활이 되도록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올바른 경쟁은 사회적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릴 때부터 선의의 수단에 의해 바람직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학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아기에 또래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경쟁상황에 대해 교사는 좀더 적극적으로 내용과 그 원인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이를 긍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때로는 양보심을 기를 수 있는 이타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도가 뒷받침 될 때 유아들도 성장하면서 적절한 대인관계 기술과 전략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며 선의의 경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유아의 또래 경쟁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의 협동성 및 경쟁성과 유아교육 경험과의 관계(박운호, 1991), 경쟁 및 협동적 행동과 연령, 성별과의 관계(김판희, 1996), 유아들의 경쟁/협동적 태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관계(김판희, 1997)과 같이 협동성과 함께 유아의 경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최근에 집단게임이라는 놀이 속에서 유아들의 경쟁모습을 질적으로 본 연구(최기영, 2002)가 있다. 그 밖의 연구는 주로 활동 과정 중에 나타나는 여러 행동 가운데 일부로써 경쟁적 행동을 보거나, 대부분 갈등에 관한 연구에서 경쟁의 내용을 일부 서술하고 있는 정도다. 그러나 경쟁은 상호작용 선상에서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갈등 자체가 될 수도 있으며, 갈등의 전략일 수 있으므로 경쟁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유아들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는지, 경쟁상황을 유아들은 어떻게 해결해나가는지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경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논하기에 앞서 유아가 경쟁상황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경쟁을 해결해 나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유아들이 보다 바람직한 선의의 경쟁을 경험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통한 사회적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B.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만 5세반 유아들의 또래간 경쟁의 내용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아겔 어린이집 이슬반의 또래간 경쟁의 내용은 무엇인가?
2. 아겔 어린이집 이슬반 유아들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은 무엇인가?

C. 연구자

이미 해가 지고 어두워진 어느 날 밤, 잠시 산책하러 아파트 단지의 오솔길을 거닐게 되었는데 맞은편에서 한 남자 아이가 책가방을 메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지친 듯 비틀비틀 걸어오고 있었다. ‘저녁은 먹었을까?, 무슨 일로 이제서야 집에 가는 걸까?’ 잠시 들었던 이런 생각들을 접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방금 본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초등학교생들이 역시 책가방을 메고 뿔뿔히 흠뻑 젖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들 뒤로 승합차 한 대가 멀어져 가고 있었다.

문득 지나간 나의 유년시절이 떠올랐다. 나 역시 늦은 밤은 아니었지만 학교에서 끝나면 학원에 다녔던 기억이 있다. 커서는 혼자도 다녔지만 어릴 때는 주로 가까이 사는 친구와 함께 다니곤 하였다. 그 가운데 1학년 때 우리집과 가까운 곳에 살고 같은 반인 유진¹⁾이라는 친구와 피아노 학원에 다녔던 기억은 잊을 수가 없다. 피아노 연습하는 걸 귀찮아하던 나는 유진이와 함께 학원엘 다니

1) 대상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다.

면서 더 많이 연습하고 학원에도 더 열심히 다녔다. 서로 진도가 비슷하다 보니 오늘은 어디까지 배웠는지 비교해보기도 하고 은근히 자신이 더 잘 친다는 것을 뽐내기라도 하듯 서로의 앞에서 자신있는 곡을 연주해 보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친구가 보이지 않는 날이면 선생님께 ‘유진이가 왜 안왔어요?’라고 묻기도 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곤 했다. 우린 친한 친구이면서 동시에 서로에게 라이벌이었던 것이었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보니 피아노 실력 외에도 많은 것들을 서로 비교하며 갈등도 일으키고 했던 것이 떠오른다. 서로 다같이 잘했어도 유진이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이라면 무척 속상하고 못한 듯한 기분이 들었고, 반대의 경우 기쁨이 배가 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우리도 모르게 마음 속에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도 서로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친구들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이 다른 친구와 좀 친하게 지내면 질투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렇게 함께 했던 친구가 이사를 간 후, 난 섭섭함과 더불어 허전함을 느꼈고 목표를 잃어버린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도 이사를 가면서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그곳에 남아있다.

그 이후에도 경쟁에 관한 모습들은 늘 나의 삶 속에 또 내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관찰될 수 있었다. 더구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친구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 서로 드러내진 않지만 늘 경쟁하며 지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자발적이고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경쟁을 부추기는 주변의 분위기에 마치 우리의 삶은 경쟁이 전부인 것처럼. 매체를 통하여 끊임 없이 보도되는 학생들의 왕따, 성적 비관 자살 등의 사회적인 문제들은 이러한 경쟁적 분위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던 중 경쟁에 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대학 시절, 교육학 수업에서였다. 첫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한 권의 책을 소개하시더니 감상문을 써오라고 하신 것이다. ‘경쟁’에 관한 주제를 다룬 책으로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익숙해져버린 경쟁구조, 경쟁의식 등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고 있었으며

경쟁으로 인한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협력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책을 읽어 내려가며 우리의 삶, 그리고 관계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경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전공인 유아교육과 관련하여 사회·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 유아들의 생활 속의 경쟁 모습은 어떨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실습, 보조교사 생활을 통해 유아들을 실제로 곁에서 지켜보면서 형제 및 또래사이에 종종 일어나는 갈등의 상당부분이 경쟁에서 비롯됨을 발견하게 되고 유아들의 경쟁에 대해 좀더 알아보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A. 또래관계

사람을 의미하는 ‘人(인)’자가 보여주듯이 인간은 서로 의지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삶을 형성해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넓은 의미에서 인간관계는 두 사람 이상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Halloran & Beton, 1987), 이형득(1984)은 인간관계 안에 관계를 형성하는 구성원간의 상호지배, 상호의존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같은 의미를 고려해볼 때, 관계를 형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요소가 관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관계의 성격도 달라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인간관계를 성격에 따라 구분한다면 크게 대인관계와 역할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때 역할관계란 어떤 사회적 의무나 역할로 인하여 형성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행위와 직무에만 관심을 가질 뿐 서로의 감정이나 취향에는 무관심하다. 이에 반해 대인관계는 서로의 생활에 대해 주관적이고 인간관계 측면에서 상대방에게 예민한 관심을 보임으로써 형성되는 것으로, 사회적 역할이나 직무이외의 건강, 안녕, 행복 등에도 관심을 갖는 관계이다(윤내현, 한상길, 한필홍, 1999). 주로 부모나 형제와 같은 가족, 교사, 그리고 또래와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는 유아들의 경우, 대부분 대인관계 속에서 사회경험의 기회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 경험은 아이들에게 대인관계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도록 영향을 주고 구체적인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Miller, 1993), 유아기 이후에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 형성의 토대가 된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유아의 사회적 관계는 점차 다양한 성인과 또래들로 그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좀더 복잡한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구성된 관계망을 이루게 된다. 특히 사회적 대상 가운데 또래와의 관계는 초기의 부모-자녀관계

및 형제관계와 이후의 사회성, 성격 발달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가 되며, 아동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생태적 맥락(ecological context) 중의 하나로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된다(이진숙, 2001).

또래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Hartup(1983)은 또래란 다른 아동과 유사한 연령의 아동을 말하며 서로 “평등한 위치(equal standing)”(p. 106)에 있다고 보았다. 한편 연령의 유사성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행동의 복잡성이 거의 같은 수준에서 상호작용하는 유아를 또래라고 지칭하거나(Lewis & Rosenblum, 1975), “매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의 그룹”으로 정의하기도 한다(Corsaro, 1985, p.95). 여기서 우리는 또래 내에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관계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견을 종합해보면 또래란 연령, 성, 발달 등의 여러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시대적, 사회문화적, 혹은 발달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아의 또래관계는 가정 외에서 경험하는 최초의 동등한 사회적 관계로서 다른 발달 영역의 기초가 되는 인지발달이나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Piaget(1974)는 유아가 성인과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사고 차이가 크므로 인지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반해, 또래 간의 사고는 그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인지적인 비평형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또한 성인은 유아보다 우세한 위치에 있으므로 유아는 자신의 견해를 포기하고 성인의 지시에 따르게 되어 스스로 사고를 형성하기 어렵게 되는데 반해, 또래는 서로 평등한 관계이므로 인지적 갈등과 논쟁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은(즉, 인지적 비평형) 사고의 재평형화를 성취하기 위한 자극 조건이 되어, 유아의 능동적인 노력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사고단계로 발달하게 된다고 보았다. 또래관계는 다른 사회적 관계로 대치할 수 없는 차별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 Piaget와 관점을 달리하고 있는 Vygotsky(1934) 역시, 또래들이 인지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즉, 유아가 혼자서 과제를 수행할 때보다 유능한 또래와의 공유된 활동을 할 때 유아 자신의 발달 수준을 넘어서는 성취를 이루게 되며, 특히 또래간의 협력

에 의해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함으로써 또래관계가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사회적 학습이론(Social-Learning Theory)에서는 또래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조영화, 2004). 첫째, 또래는 서로에게 모델로서의 역할을 한다. 아이들은 서로의 행동을 관찰 및 모방하고 이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된다. 즉, 유아들은 성인보다 또래의 행동에 더 관심을 기울이며 모델이 자신과 유사한 특성을 가졌을 때 더욱 모방이 잘 일어난다. 둘째, 강화자로서의 역할로 사회적 관심을 또래에게 돌리기 시작한 유아들은 또래의 이야기나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래에게 인정받고 싶어한다. 이로 인해 유아들은 판단없이 또래의 말과 행동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셋째, 사회적 준거로서의 역할이다. 또래는 자신의 행동이나 능력 등을 비교 및 평가할 수 있는 준거가 되며, 그 결과는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또래는 모델, 강화자, 사회적 준거자로서의 기능 외에도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사회적 지지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타인이 주는 실제적이고도 정신적인 지원을 뜻하는 것으로 아이들은 또래와 함께 있거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동반적 지지를 많이 받게 된다고 하였다(송명자, 1997). 즉 유아들은 친밀감 있고 상호적인 또래관계를 통해 다양한 사회·정서적인 지원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고, 이는 유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게 되는 것이다(Hartup, 1989). 이처럼 또래가 주는 사회적 강화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 형성에 중요한 발달적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훗날 성인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Youniss, 1980; Hartup, 1992; Katz & McClellan, 1991).

특히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부적응이 유아기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과 관련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유아의 또래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Hymel, Bowker & Woddy, 1993). 또래에 의해 배척당한 유아는 청소년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Roff, Sell & Golden, 1972), 일탈과 인간관계의 어려움(Millich & Landau, 1981)과 같이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이지영, 1997, 재인용). 이러한 결과들은 또래관계가 성공적인 사회 적응에 중요한 영역임을 나타내며, 초기의 또래관계에서 좋지 못한 경험은 이후의 정서적, 정신적 건강문제와도 관련이 있음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이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의 연속성과 현대 사회의 구조 변화에 따른 아이들의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도 하겠다.

B. 또래간의 경쟁

1. 또래간 경쟁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간은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경쟁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쟁은 본인 및 상대방, 그리고 상호관계, 더 나아가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며 개인의 행동이나 동기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 되기도 한다.

우리말 대 사전(1987)에 한 가지 목적에 대하여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루거나 다투므로 정의되어 있는 ‘경쟁’은 ‘To seek together’에 해당하는 라틴어 동사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Sherif, 1977), 학자들은 ‘경쟁’에 대해 각자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경쟁분야에서 선구적인 연구자인 사회심리학자 Deutsch(1949)는 목표의 성질에 따라 협동과 경쟁을 구분하며, ‘점진적인 의존목표(promotively interdependent goals)’ 상황인 협동과 달리 경쟁은 ‘점퇴적 의존목표(contriently interdependent goals)’ 즉, 한 개인이 목표범주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은 그 범주에서 제외되고 개인의 이동이 타인의 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정의내리며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로 보았다. Owen(1987) 역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한 쪽은 그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아는 상황에서도 목표 획득을 위해 서로가 노력할 때 경쟁이 일어난다고 함으로써 목표달성의 양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보았다.

Schneider(1976)는 보상문제를 중심으로 정의 내렸는데, 즉 경쟁상황이란 적어도 타인의 결과보다 자신의 결과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타인에 비해 자기의 보상을 최대화하려는 것을 주목적으로 두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Piaget(1962)는 경쟁적 유형을 협동적 유형과 구분하면서, 공평성이나 조직적 연대성이 배제되고 개별적인 자기중심주의로 연결된 유형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개념들은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김명훈과 정영운(1987)은 경쟁이란 한 가지 목표를 두고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남보다 먼저 도달하려거나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려는 욕구, 즉 우월의 욕구에서 비롯된 사회적 행동이라고 하였으며, Adler(1972)는 사람은 출생 후 환경과 타인을 인식함에 따라 열등감을 갖게 되는데 그에 대한 보상행동으로 경쟁이 나타난다고 함으로써 우월감과 열등감의 심리가 경쟁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됨을 보여준다.

이처럼 경쟁이란 어떤 사람이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타인도 동시에 획득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행동(Margaret, 1937)으로, 목표물에 대한 경쟁적인 행위를 의미함과 동시에, 어떤 사람을 이기려는 목표, 즉 상대를 향한 대항(rivalry)을 의미하게 된다(김민성, 1993, 재인용). 다시 말해, 전자는 대상적인 목표물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며 후자는 인간관계에서 자기 우월성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Kamii와 DeVries(1979)는 경쟁은 둘 이상의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하여(최기영, 2002), 자신과의 경쟁 즉 자신의 기록 작성이나 목표를 상대로 경쟁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쟁'의 의미에서 배제하고 있다.

'경쟁'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을 종합해볼 때 경쟁은 목표의 특성, 과제의 성격, 상호작용 조건, 보상조건 등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Pepiton, 1980), 함께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두고 이를 획득하려는 노력과 상대방에 대한 우월욕구, 열등감 보상욕구의 표현으로 볼 수 있겠다.

경쟁적 상황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그 형태가 복잡해지는

유아들(Howes, 1988)에게서도 빈번하게 관찰된다. 특히 또래는 평등한 관계로 욕구 및 발달상태에 있어서 유사한 수준에 있으므로 같은 목표를 두고 겨루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강화자, 사회적 모델, 준거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서로에 대한 우월감 및 열등감의 심리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McClintock & Moskowitz(1976)는 3~4세 유아를 대상으로 경쟁과 협동, 개인적 조건 하에서 또래간 태도를 관찰한 결과,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단기적인 이득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또한 4.5세가 되면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동과 경쟁성이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자율적 사회동기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7세경부터라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이들이 협동을 선택하는 빈도가 증가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중심적이고 조망수용능력이 부족한 유아의 발달적 특징이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경쟁적 혹은 협동적인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 때 나타나는 협동적인 태도는 유아가 타율적 도덕발달 시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완전한 의미에서의 협동이라기보다는 목표 달성을 향한 경쟁의 한 형태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반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협동이 감소하고 오히려 경쟁이 증가한다는 상반된 연구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 Madsen(1971)은 4~5세와 7~8세를 대상으로 보상조건 상황에서 경쟁반응과 협동반응의 선택을 비교한 결과, 4~5세 유아들이 좀더 협동적이고 7~8세 아동들은 좀더 경쟁적으로 나타났다.

Kagan & Madsen(1971) 역시 문화간 비교 연구에서 Anglo-American의 5-6세, 8-10세 아이들의 경우, 연령 증가에 따라 경쟁성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발달적인 면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유아기 이후 아동이 나이가 들에 따라 경쟁이나 협동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이가 어린 아동에 비해 더 경쟁적이 되며, 협동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관희, 1996).

김관희(1996)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경쟁적이라는 결과들에 대하여 학령기 아동들이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경쟁적이도록 사회화되기 때문으로 보고,

발달적인 특성보다는 사회적 조건의 반영으로 보았다. 오히려 인지적 성숙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문제상황에 있어서 협동을 하기위한 판단기술과 타인의 입장 이해, 도덕적 추리능력 및 협동기술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김판희, 1996).

한편 Judith와 Andrew(1983)는 아이들은 성장함에 따라 그들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할 뿐이라면서 경쟁적 혹은 협동적인 성향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을 통해 생각해본다면, 유아들은 또래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경쟁상황에 있어서 발달특성상 보다 경쟁적일 수는 있지만, 성장하면서 인지능력 및 사회적 기술 등이 발달함에 따라 경쟁적 혹은 협동적인 태도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신장되며, 이러한 능력이 발달하는데 있어서 사회·문화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유아들의 또래간 경쟁 경험은 이후 사회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경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이 경쟁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저마다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Ormrod(1999)는 경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정적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 평등과 공평을 무시하고 이기기 위해 부정을 저지르며 협동적 태도가 어려운 행동들을 유발한다. 둘째, 스스로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남보다 잘하는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다. 셋째, 극소수의 성공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실패자는 무능감에 빠지게 된다. 넷째, 결과 원인을 노력보다는 능력에서 찾는다. 이외에도 경쟁은 서로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학업성취와 창의성을 떨어뜨리며,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상호간 신뢰와 협조, 격려와 충고, 인내, 사회성, 자아존중감 등을 감소시키게 된다고 한다(문용린, 1988; 정문성, 김동일, 1988).

놀이에 있어서도 경쟁적인 놀이의 경우,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보고하는데 Perry & Bussey(1984)는 집단 게임에서 두 집단이 경쟁상태에 있을 때 상호 적대적인 태도 즉, 싸움, 이기심, 타인 배려하지 않기 등과 같은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Day 등(1984)은 유치원 아이들에게 지시나 규칙이 많지 않고 경쟁 요소가 제외된 간단한 게임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최기영(2002)은 집단게임 시 나타난 유아들의 경쟁성을 질적 연구한 결과, 인지적인 발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사회·정서적 발달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보았다. 그 밖에도 Cartwright(1993), Glakas(1991), Orlick(1978, 1981), 그리고 McGill(1984)과 같은 많은 학자들이 경쟁적인 요소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한편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쟁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학자들도 있다. Kamii(1980)는 적절한 경쟁심은 단순히 상대방을 이기거나 앞서기 위한 노력 이상으로, 아동의 사회적, 도덕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경쟁이 학습에 대한 동기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경쟁의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다보면 아동의 올바른 경쟁성 발달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없게 되므로 회피하려고보다는 긍정적으로 지도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박윤희(1991)는 선의의 방법에 의한 올바른 경쟁성은 목표물에 대해 자기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된다고 하였다.

놀이 안에 포함된 경쟁적 요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진·성원경(1994)은 게임에서의 경쟁은 흥미, 공격성에 대한 보상, 개인적 성장, 자아개념, 탈중심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경쟁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적절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경쟁에 대한 긍정적 입장에서는 인간관계에서 합리적으로 경쟁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측면으로 유아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협력과 경쟁행동을 배우게 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라고 본다(한국행동과학연구, 1984).

인간은 경쟁이라는 사회성을 천성적으로 타고났다기보다는 발달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박윤희, 1991) 그 가능성을 키워주는 환경에 따라 경쟁의 모습은 달라지게 된다는 입장이 우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끌어 주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쟁의 지도방향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쟁이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모두 인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쟁의 부정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아이들을 경쟁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협동적이거나 이타적인 상황을 자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며 생활 속 여기저기에서 직면하게 되는 경쟁상황에 대해 일부러 회피하거나 무작정 부딪치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또래간 경쟁의 내용

사회적 상호작용의 하나인 경쟁은 목표, 욕구, 경쟁자,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환경에 따라 다양한 내용과 성격을 가지게 된다. 유아들 역시 그들이 목표로 하는 주된 관심이 무엇인지,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특성은 어떠한지, 어떤 환경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따라 경쟁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Rajecki와 Flanery(1981)는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대부분이 물건에 관한 것이라 하였고, Smith와 Green(1975)도 유아들의 또래간 공격의 73%가 소유물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하였으며(김진영, 1998, 재인용), 이밖에도 많은 결과들은(Killen & Sueyoshi, 1995; Laursen & Hartup, 1989; Ross, 1996) 유아기에 사물 소유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대물 갈등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보고한다(김지현 외, 2004, 재인용). 그러나 점차 연령이 증가하면서부터는 권리 주장, 놀이 활동의 결정, 규칙 위반과 같은 대인적인 문제가 더 보편화된다고 한다(Putallaz, Hellstern, Sheppard, Grimes, & Glodis, 1995).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처음엔 주로 사물의 소유에 관심을 두지만, 사회인지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관심의 대상이 사회 지향적으로 확대됨을 알 수 있다.

경쟁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물과 같은 물질적 대상뿐만 아니라 권력이나 지위

와 같은 비물질적 대상 또는 명예나 인기 등과 같은 정신적 가치 등의 자원 획득을 그 내용으로 하여 일어나는데(김훈기, 2005), 유아의 발달적 관심사를 고려해볼 때, 또래관계에서의 경쟁도 사물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다가 점차 사회적 권리, 가치 등의 소유를 내용으로 하는 변화양상을 보인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다.

한편 경쟁은 그 개념에 있어서 우월욕구에서 비롯된 행동(김명훈, 정영운, 1987), 열등감에 대한 보상행동(Adler, 1972)을 포함하는데 이와 관련된 심리를 살펴본다면, 우선적으로 사회적 비교를 들 수 있겠다. 사회적 비교에 관해 최초로 이론을 제시한 Festinger(1954)는 그의 논문에 ‘사람에게는 자신의 의견과 능력을 평가하려는 추동이 있는데,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수단을 사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과 능력을 남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평가하려고 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비교하는 상대는 자신과 의견 또는 능력이 비슷한 사람이 선택되기 쉽다’는 내용을 기고하였다. 이에 Easterlin(1995)은 사람들은 비교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할 경우 만족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Michalos(1985)는 객관적인 사실 자체보다는 이러한 주관적인 인식이 삶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유아들은 또래가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발달정도, 능력, 목표, 주위환경 등이 비슷하므로 비교 상대로 삼게 된다. 자신의 힘을 과시할 목적으로 자기와 힘이 비슷하거나 약한 유아들에게 일부러 싸움을 걸어서 인정받고 싶어하며,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평가해 보고 싶어한다(임성혜, 손영수, 2001). 이처럼 유아들은 또래를 자신과의 비교집단으로 삼음으로써 우월감, 또는 열등감을 경험하게 되며 그 속에서 상대방을 앞지르려는 경쟁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 자아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비교, 평가는 열등감 및 우월감 외에도 자존심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자존심은 인간에게서만 볼 수 있는 생의 욕구로(이만갑, 2004) 경쟁상황에서 외현적인 내용 이면에 숨겨진 내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 Coopersmith(1976)는 자존심에 대해 ‘자신에 대한 태도이며, 표현되는 가치에 대

한 개인적 판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Rosenberg(1978)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존심이 자신을 만족스러운 존재로 생각하고 스스로 높이는 성향 및 태도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자존심은 타인으로부터 받는 반응 혹은 자신과 관련된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태도와 신념에 의해 형성되는데(홍성열, 2004) 이러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변하므로 사람들은 자존심을 유지하거나 높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타인과 겨루게 되는 경쟁상황에서 더욱 강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으며, 경쟁적이지 않은 갈등상황을 경쟁적인 갈등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민감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 밖에도 경쟁은 소속, 인정, 애정의 욕구 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그 내용으로 하게 되며 이러한 욕구는 표현 대상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한편 경쟁은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도 형태, 내용, 양상 등이 다를 수 있다. Mead(1961)는 그의 연구에서 Kwakiutl 인디언은 자원이 풍부해도 경쟁을 하는 사회였으며, Bateiga족은 자원이 빈약해도 협동하는 사회체제였음을 보고하며, 사회 구성원들간에 경쟁은 자원 유무보다는 그 사회나 문화의 규준에 달려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내 유럽계 아동과 멕시코계 아동간의 비교(Madsen, 1971; Knight, Corta & Bernal, 1993), 중국과 미국 아동간의 비교(Domino, 1992), 도시아동과 시골아동의 비교(Madsen, 1967) 등의 연구결과는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경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현대 한국 유아들의 경쟁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를 연구한 문헌 자료를 보게 되면, 현대 한국 사회는 감투지향주의, 상하서열의식, 속전·속결주의, 현세주의, 몰개성적 합일주의, 창조성을 기피하는 사고, 약속과 책임의식의 부재 등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민문홍, 1998; 박재환, 2002; 최재석, 1976). 특히 최상진 외(1997)는 한국인에겐 생활 속에서 역사, 문화적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우쭐'심리가 있다고 하면서, 우쭐심리는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는 자의식을

확인하려는 욕구와 더불어 남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 자신의 열등감을 감소시키거나 은폐하려는 욕구와 상관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런 결과는 경쟁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소들이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에 깊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유아들의 경쟁 속에도 유사한 종류의 심리적 작용과 관련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됨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유아의 발달 및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족·문화적 배경을 살펴본다면 자녀중심의 핵가족화, 어머니 역할의 비대화, 가족이기주의의 모습이 특징으로 나타나며,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 욕구로 인한 유아기 조기교육 과열현상을 볼 수 있다(김현정, 2003). 우남희, 현은자, 이종희(1993)는 연구를 통해 학령 전에 조기/특기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유아가 전체 연구대상 중 76.9%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으며, 박수진(2002)은 어머니들이 조기/특기교육에 실시 이유에 대해 ‘남이 하니까, 내 아이가 뒤쳐질까봐’라고 응답한 연구결과를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유아들이 교육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환경 속에 자라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유아들의 또래관계에서도 점차 능력과 지식 등이 주된 관심사가 되고 이를 내용으로 한 경쟁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경쟁의 내용은 심리적 욕구, 발달적 관심, 관계적 특성, 사회·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유아들의 개별적 차원뿐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한 구조적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3. 또래간 경쟁전략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망하고 해결하는 것은 대인관계의 시작이나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또래 간에는 다양한 행동 모델의 경험을 통해서 동등한 관계에서의 사회적 적응력과 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게 되는데, 이 때 문제가 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선택, 적용되는 대

인관계 문제 해결 기술과 방안들은 효과적인 대인행동의 기초를 형성한다.

유아들은 경쟁상황에 있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혹은 이와 더불어 상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전략이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황에서, 자기의 이해를 방어하고 고양시키는 상호작용을 취하는 방식을 의미한다(한제인, 1994). 그리고 유아가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는 문제의 해결방향 및 결과와 상호관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유아들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의 문제는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특성 및 지위, 자신과의 관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희진, 박혜영(2001, p.11)은 교사에 대한 유아들의 요구전략 사용을 연구한 결과 "유아들이 상대의 특성과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여 자신의 의도를 달성하고 효과적으로 상호작용 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전략을 선택할 능력이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엄정례(1997)는 유아들이 문제해결에 있어서 임의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확률이 높은 쪽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등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전략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한편 Charlesworth(1993)는 유아들이 성장과정에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경쟁전략 기술에서 크게 차이가 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자원획득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았다.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전략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유아들의 기본적인 능력이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또래관계의 문제상황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특히 경쟁상황은 한정된 목표를 획득해야 하므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이끌어가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이에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기기 위해 부정을 저지르고 평등과 공평의 개념을 무시하며 협력적인 태도가 어려운 행동들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Ormrod,1999). 더구나 유아들은 자기중심적이어서 자신이 선택하고 생각한 것을 쉽게 포기하거나 양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Kamii(1980)는 이미 너무 경쟁적인 유아들과 경쟁적 요소가 많은 사회로 인해 경쟁이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경쟁을

통해 유아들이 공정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그동안 교사들이 경쟁에 대한 지도가 서툴렀기 때문에 경쟁의 긍정적인 면이 감소하고 부정적인 면만 확대되었다면서 유아들이 적극적인 방식으로 사고하고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적절한 경쟁이 되도록 도와야 함을 강조한다.

Thomas와 Klimann(1974)은 갈등을 대처하는 양식으로 경쟁, 회피, 순응, 타협, 협동을 제시하며 이 가운데 경쟁은 자기 방식대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주장적 성격이 강하며 비협조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런 방식의 해결은 자신의 이익과 만족에만 관심을 두므로 승-패 또는 패-승의 결과를 낳는다고 하면서, 경쟁이 문제해결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경쟁적인 상황에서 유아들은 자신의 목표 획득을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겨루기와 같은 전략이나 또다른 경쟁 상황을 일으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최기영(2002)은 집단게임에서 유아들의 경쟁성을 질적 연구한 결과 대집단 편 게임에서는 빨리 이기려고 서두르기, 상대편의 잘못을 이르기, 같은 편과 단결하기, 상대방을 향해 지라고 야유하기, 규칙 지키기, 공평한 조건 요구하기 등의 행동이 나타났으며 소집단 판게임에서는 먼저 말으려고 서두르기, 때쓰기, 다투기, 반칙하기, 속임수 쓰기 등의 전략이 관찰되었음을 보고한다. 이 때 유아들의 '규칙 준수'에 관한 전략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은 대집단 편게임에서는 교사의 지도 하에 규칙준수행동이 승부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과, 규칙 준수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는 분위기인 반면, 소집단 판게임에서는 규칙 위반이 승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과, 규칙 준수 여부는 상대방에 의해서만 확인이 되는 분위기였다는 점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결과는 유아들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은 자기중심적이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도덕적 판단이 필요한 전략의 경우, 유아들은 타율적 도덕성이 강하므로 자신의 욕구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Charlesworth(1988)는 협력 또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사회문화적으로 적응력

있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았다. 이는 협력이 이타적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자원획득이라는 이기적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임을 시사한다. 즉, 경쟁전략으로서의 협력은 집단 간의 경쟁에 있어서 집단 구성원과의 협력을 하는 상황이나, 집단 내에서 개인별 경쟁을 위해 협력을 하는 상황으로 집단적 또는 개인의 적응 행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Charlesworth, 1988).

김관희(1996)는 경쟁/협동상황에서 4-5세 아동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연구에서 집단 내 자원획득의 개인차가 컸음을 밝히며, 유아들은 거의 협력을 하였고, 협력하는데 보내는 시간은 유사했으나 자원 획득이 낮은 유아는 협력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은 거의 활동에 비참여하는 태도를 보였고, 자원 획득이 높은 유아는 협력해야 하는 상황 외에도 자신의 자원 획득을 위해 자기 주장적 행동이나 집단과제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이익추구와 남을 도와주는 전략이 효과적으로 병행될 때 자신의 자원획득의 효율을 높인다는 Charlesworth(1993)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였다. 위와 같이 협동을 함으로써 보상-자원획득의 결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경쟁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유아들이 협동전략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또래간 경쟁에서 유아들이 사용하는 전략은 일정한 형태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같은 전략이라도 전후 상황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다르므로, 유아가 경쟁상황에 직면하는 맥락을 고려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의 경쟁 전략 사용은 사회적인 적응 및 성장과 관련이 되고, 과도한 경쟁심으로 인해 비사회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유아가 사회화되는 과정 속에서 보다 공정하고 적절한 경쟁상황을 경험함으로써 동기부여나 협동 또는 양보와 같은 이타적인 행동으로 승화시켜 성공적인 상호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Ⅲ. 연구 방법

A. 문화 기술적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화기술적(ethnographic) 연구는 인류학적 전통에서 발전된 것으로 연구대상자의 관점에서 인간 및 인간 집단들의 문화 및 문화에 관련된 면을 기술하는 연구양식을 말한다(Bogdan & Biklein, 1982/1991). 이 때 문화란 일반적으로 연구대상자가 경험을 해석하고 행동을 유발시키는데 사용하는 습득된 지식을 의미하며(Spradley, 1980), 참여자간에 공유되는 이해, 그리고 상징으로 확대 해석된다(Bogdan & Biklein, 1992). 교육분야에 적용되는 문화기술적 연구는 현상의 복잡성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 본질적인 현상의 이해를 돕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교육환경에서의 맥락, 활동 그리고 연구 대상자의 신념에 관한 풍부하고도 서술적인 자료를 제공한다(Goetz & LeCompte, 1984; Peshkin, 1988).

인간의 행동은 사회 문화적 환경의 맥락에서 형성되고(Shimahara, 1988), 상황마다의 맥락이 일상적인 가치체계를 형성하고, 개인의 인지적 성향을 형성한다(Bruner, 1986). 즉, 인간이라는 대상을 탐구함에 있어서 문화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유아들은 개인이 속한 특수상황 속에서 항시 새롭게 형성되는 자신의 사전구조를 기폭제로 하여 의미를 창조해가는 동시에 그와 그의 또래로부터 영향을 받는 상호주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손영수, 2001). 그러므로 유아들의 행동과 반응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생활세계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문화기술적 연구에 있어서 대표적인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과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가 있다. 참여관찰이란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들의 세계로 들어가 그들의 삶에 참여하며 관찰한 것으로(Bogdan & Biklein, 1982/1991), 그곳의 환경 및 사람과 생활에 친숙해지는 일로

부터 시작된다(정용교, 2001). 또한 심층면담은 연구대상자의 감정, 생각, 의도, 세상에 부여하는 의미 등의 추상적인 부분이나 관찰할 수 없는 과거에 일어난 행동이나 사건, 그리고 관찰한 내용에 관한 연구자의 이해나 해석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홍용희, 1998) 것으로 연구자는 면담을 통하여 연구 대상자들이 자신들의 세계를 해석해 나가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유아들의 또래관계에서 나타나는 주된 심리적 행동의 발견에(그 결과, 경쟁) 목적을 두고 유아의 마음, 사고, 행동 등을 문화적 맥락 안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어린이집의 만 5세 학급을 일정기간동안 관찰하고 대상에 대한 면담을 통해서, 유아들의 반응 및 태도,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료분석 과정에 있어서는 삼각측정법을 사용하여 연구자의 주관적인 상태를 벗어나고 해석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B. 연구 대상

1. 아결 어린이집

1994년에 개원한 아결 어린이집은 서울시 G구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체 산하 어린이집으로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다. 아결 어린이집²⁾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 내 양육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생활보호 대상자나 저소득층 부모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소득이 낮은 가정의 자녀도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아결 어린이집 교육안내문, 2002).

2) 본 연구 대상 어린이집명과 학급명, 교사명, 유아명은 연구 대상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아결 어린이집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크게 ‘건강한 사람, 유능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으로 이를 위해 집처럼 편안한 분위기 속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제공하며, 전인발달을 위한 아동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아결 어린이집은 대지 559평, 연면적 387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단독 건물이다. 유치원 정문을 들어서면 보도블록이 깔린 공터와 주차장, 그리고 집모양의 어린이집 건물이 보이며, 몇 발자국 더 걸어가면 넓게 펼쳐진 실외놀이 영역을 볼 수 있다. 어린이집 주변은 꽃과 나무 등의 식물이 무성한 담장으로 둘러싸여 외부의 소음을 막아주고 있으며, 주변에 고층 건물이 없어서 햇볕이 잘 들기 때문에 넓은 공간임에도 아늑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아결 어린이집의 현관문을 열면 넓은 현관의 양옆으로 유아들의 신발장이 자리하고 있으며 신발을 벗고 안쪽으로 들어서면 좌우로는 원장실과 영아반, 그리고 주방을, 정면에는 화장실과 계단을 볼 수 있다. 원목으로 된 계단을 통해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대·소근육 활동실이 좌우에 각각 있으며, 정면에는 자료실, 맞은편에는 기계실이 있다. 지상 2층과 3층으로 올라가면 총 5개의 학급과 교사실, 화장실 등이 있다.

아결 어린이집의 실외영역은 넓은 편으로 모래로 된 영역엔 놀이기구영역, 모래영역, 물놀이 영역이 있으며 가장자리에는 재배영역과 언덕모양의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는 걸 볼 수 있다. 또한 놀이터의 반대편 가장자리는 ‘ㄴ’자형으로 보도블록이 깔려있어 아이들이 구슬치기나 줄넘기와 같이 굳은 땅을 필요로 하는 놀이도 하고 한여름에는 이동식 수영장이 설치되어 신나게 물놀이를 하기도 한다. 한편 실외영역의 가장자리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시원한 그늘 아래에 앉아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원장님은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신 분이고 교사들은 총 13명으로 유아교육이나 아동학을 전공하였다. 학급현황을 살펴보면 1·2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2개 반의 총 6개 학급이며, 1·2세 학급을 제외한 나머지 학급들은 각각 2명의 정교사가 담임과 부담임을 맡아 담당하고 있다. 1·2세 반은

가장 어린 연령이므로 3명의 교사가 맡고 있으며 유아 대 교사 비율은 1:5로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 취사원 3명 그리고, 영양사, 복지사, 간호사, 사무원이 각각 1명씩 있다. 전체적인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9시 30분으로, 평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 까지, 토요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13시까지 교육하며, 교사는 교육시간을 전후로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교대로 달리하여 근무한다.

2. 이슬반

이슬반은 만 5세반으로 42명의 유아들과 담임 교사, 부담임 교사가 함께 생활하는 곳이다. 이슬반은 지상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실의 동쪽과 남쪽의 벽면이 대부분 창문으로 되어 있어 통풍이 잘 되고 밝은 분위기이다. 각각의 창문에는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채광을 조절할 수 있으며 창밖에는 안전망이 설치되어 안전하게 외부를 조망할 수 있다. 교실벽은 흰색톤이며 교구장이 모두 밝은 색의 원목이라 단정하고 깔끔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된다. 출입문이 있는 쪽의 벽면은 교사들이 자료들을 보관하고 수시로 필요한 물건들을 꺼내 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교실의 안과 밖에는 유아들의 여벌 옷 등을 넣을 수 있는 사물함이 있다. 또한 교사는 빈 벽면, 천정 등을 이용하여 유아들의 작품이 돋보일 수 있도록 전시해주는 등 교실의 어떤 공간도 쓸모없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아들은 온돌로 된 교실 바닥에서 집에서 처럼 실내화를 신지 않고 다니며 온풍기 겸용 에어컨이 있어서 교사가 기온에 따라 수시로 체크하고 조절하며 온도를 알맞게 유지한다.

활동영역은 쌓기, 역할, 조형, 음률, 언어, 수·조작, 과학, 간식, 책보기, 컴퓨터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때에 따라 흥미영역이 추가되기도 한다. 각 영역에는 활동 주제에 따른 교재·교구가 다양하고 충분하게 비치되어 있고 생활주제가 바뀔 때마다 교재·교구를 교체해주며 흥미있어 하는 교구들은 좀더 내어주기도 한다. 특히 역할영역은 거의 고정되어 있는 기본적인 주방시설과 주제에 따라 변하는 교구들로 채워져 있으며 역할 놀이의 주제는 생활주제가 바뀌는 시

기와 큰 상관없이 아이들의 흥미와 요구에 따라 자주 변동되는 양상을 보인다.

1) 교사

이슬반 담임인 조교사는 4년제 대학교에서 가정관리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아동교육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후 아걸 어린이집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다. 부담임을 맡고 있는 신교사는 4년제 대학교 아동학과를 졸업하고 올해 교사로서 첫발을 내딛게 된 초임교사이다. 신교사는 이미 4학년 재학시절 이곳 아걸 어린이집에서 실습교사를 한 경험이 있어 낯설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교사생활을 하고 있었고 일주일 단위로 담임과 교대하면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신교사는 늘 밝은 미소로 유아들을 대하며 아이들과의 문제상황에서도 조용하고 침착한 모습을 유지한 채 유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신교사의 능숙한 피아노 연주 솜씨 덕에 피아노 치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유아들도 생기고 교사의 반주가 나오면 노래뿐 아니라 리듬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는 유아들이 많아지는 등 아이들의 음악적 흥미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렇게 신교사는 아이들과의 생활에 익숙해진 모습이었고 교사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초임교사로서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항보다는 건강상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였다.

신교사: 조선생님과 함께 하니깐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중략) 컨디션 좋은 날에는 아이들과 지내는 것도 너무 좋은데 몸이 힘들거나 아플 때는 아이들과 하루종일 힘들기도 해요.

(면담, 2003. 9. 24)

한편 조교사는 밝은 미소와 활기있으면서도 침착한 모습으로 유아들을 대하며 아이들의 흥미와 요구를 교육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유아들의 발달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지도를 하고 있었다.

조교사: 유아들은 추상적인 것들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가시화 해주고 뭔가 대응을 시켜주죠. 예를 들어, 길이에 대해 나오면 누구 키만 하다는 거를 얘기해주거나 직접 길이를 재보고, 줄로 이어 보기도 하고,(중략) 유아들이 하기 싫어하는 활동의 경우, 잘한다고 격려해주면 애들이 되게 뿌듯해서 좋아해요. 선생님이 많이 칭찬해 준다는 거, 뭔가 활동에 대한 흥미 같은 게 필요해요. 특히 쓰기놀이 같은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한번은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죠. 그렇다고 글자를 완벽하게 쓰는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쓰는 걸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죠.(중략) 아이들이 전체적인 영역에서 흥미를 가질 수 있으려면 교사의 유도도 필요해요. 그래서 교사가 인위적으로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경험을 시켜주고 “재밌었니?”라고 물어보고, “재밌어요.”하면 “어, 그럼 다음에도 해보자. 선생님도 너랑 해서 너무 즐거웠어.” 이런 것들도 해요.

(면담, 2003. 9. 29)

이렇게 조교사는 나름의 교육철학과 교육방법을 가지고 반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슬반을 포함하여 만 5세 학급을 3년째 맡다보니 해마다 바뀌는 아이들에게서 변화를 느낀다고 하였다.

조교사: 많이 달라요. 옛날에는 집중력이 높았구요. 좀더 진지하다고 할까요? 지금은 집중하는 시간도 더 짧아지고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조금 더 단순한 구조물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좀더 자극적인 것들에 관심을 보여요. 도입 자료나 교사가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극적이어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구요.(중략) 인지적으로 아는 것은 많아졌어요. 옛날보다는 주변에 어떤 것들에 대해 자극도 많이 받고 엄마들이 지식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스스로 알아내려고 하는 지식보다는 정보적인 것, 주위 들은 것, 아니면 내가 관심있어 하는 일부에 대해서,,, (중략) 도덕적인 면에서는 확실하게 옛날엔 이렇고 지금은 이렇다고 하기 곤란하지만 예전에 비해선 도덕적인 판단을 잘해요. 하지만 오히려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는 옛날이 지금보다 좀더 낫죠. 상황 판단은 잘하는데 내가 실제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어려워해요.

(면담, 2003. 9. 29)

예전과 달라진 유아들의 모습을 설명하던 조교사는 유아들의 경쟁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간간히 언급하였는데 이슬반 유아들의 경쟁성향에 대해 느끼고 있는 대강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조교사: 특히 지금 우리반 아이들은 집착이 많은 것 같아요. 좋아하고 관심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만 막 찾고, 계속 그것만 하려고 하구...(중략) 인지적인 면에서 아는 것이 많은데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즉, 누구도 하나까 나도 하고 싶어하고 뭐 이런거요. 분위기를 타고 유행도 타고 약간 그래요. (중략) 음식을 먹을 때도 대체로 잘 먹는 편인데 분위기가 왜 형제들도 한 두명 있으면 잘 안그런데 세 명 정도 되면 내 것 챙길려고 막 많이 먹잖아요. 그런 분위기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아이들이 좀더 이기적인 면들이 있어요. 자기 혼자 잘 보이려고 하고, 내가 이익 불려고 하는 거, 개인주의 성향도 좀 있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칭찬 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면담, 2003. 9. 29)

조교사는 이슬반 유아들의 경쟁적 분위기에 대해 느낀 바를 이야기 하면서 시대적 흐름의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유아들의 특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에 적합한 지도를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조교사는 관찰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이나 미처 보지 못했던 사건의 전후 상황들에 대해 알려주는 등 연구자를 도와주었다. 신교사 역시 관찰 초기엔 누군가에 의해 관찰되는 것이 부담되었으나 곧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다며 연구에 협력해주었다.

신교사: 처음에는 누군가에 의해 관찰된다 생각하니 솔직히 신경도 쓰였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웃음)

(면담, 2003. 8. 8)

2) 유아들

이슬반 유아들은 만 5세 유아들로 남아 22명, 여아 20명의 총 4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어린이집 근처에 거주하고 있으며 보호자와 함께 등원 및 귀가를 한다. 담임교사에 의하면 현재 피아노, 발레, 태권도, 조형 등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지만 많지 않으며 일과 시간 도중에 나갈 경우, 동의서를 써야 하므로 주로 귀가 후 다닌다고 한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특별활동을 신청자들에 한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대부분 특별활동을 신청하여 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끼리 서로 친한 사이일 경우 사교육이나 특별활동을 같이 신청하여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조교사는 이슬반 유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었다.

조교사: 이슬반 유아들은 전체적으로 밝고 명랑한 편이이에요. 특히 음악놀이 전체적으로 많은 흥미를 보여요. 악기 등 흥미거리를 제공해주면 같이 모여서 하고,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새노래 배우는 것도 빨리 익히는 편이죠. 근데 정신연령은 좀더 낮아진 것 같아요. 뭐랄까 그런 아이도 있고 안 그런 애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어리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후반기에는 그래도 많이 큰 건데 초반에는 정말 아가들 같았어요. 되게 어렸어요. 블록을 구성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다루는 등의 놀이에서도 잘 수행하기보다 장난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인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녜요. 아는 건 많거든요. 주변에서 들은 건 많은데 스스로 알아내려는 건 부족한거 같아요. (중략) 아이들 관계에 있어서는 좀 똑똑한 애들이 아이들을 끌고 다니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이들 성향에 따라 또 달라져요. 영균이는 되게 똑똑한데 애들한테 못되게 하니까 인기는 없죠. 그래도 지적능력이 좌우하는 부분은 있긴 해요. 똑똑한 애들이 주영이 같은 애들 있잖아요. 개네들하고는 또 안 놀아주고 되게 무시하고 그랬어요. 우리 반 애들은 대체적으로 가족배경이 무난한 것 같아요.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를 받고 있는 아이는 5명가량 되는데 비밀로 하니까 아이들끼리의 생활에 있어

서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면담, 2003. 8. 14)

조교사는 이슬반 유아들이 밝고 명랑한 편이며 인지적으로 습득능력이 좋은 반면, 아이들의 지적능력이 또래관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이슬반 유아들은 실내 자유선택으로 일과를 시작한 뒤 대·소집단 활동, 실외놀이, 점심, 유희실 놀이, 휴식 및 특별활동, 회상하기, 오후 간식, 자유선택 활동 및 귀가로 이어지는 하루를 보낸다. 이때 오전 간식은 실내 자유선택활동 시 간식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며, 오후 간식은 점心和 마찬가지로 식당으로 내려가 단체로 먹게 된다. 또한 오후의 휴식시간에는 주로 낮잠을 자는데, 특별활동을 신청한 자에 한해서 주 3회는 지하에 있는 대·소근육 활동실에서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게 된다.

<표 - 1>. 이슬반의 하루 일과

시간	활동
07 : 30 ~ 09 : 30	등원 및 통합 보육
08 : 30 ~ 09 : 30	개별 계획 및 실내 자유선택활동
09 : 30 ~ 11 : 30	실내 자유선택활동 및 자율간식
11 : 30 ~ 12 : 00	대·소집단 활동 및 회상하기
12 : 00 ~ 12 : 40	실외 자유선택활동
12 : 40 ~ 13 : 30	점심 및 이닦기
13 : 30 ~ 14 : 30	유희실 놀이
14 : 30 ~ 16 : 00	휴식 및 특별활동
16 : 00 ~ 16 : 20	하루일과 돌아보기
16 : 20 ~ 17 : 00	오후 간식
17 : 00 ~ 18 : 30	오후 실내외 자유놀이 및 귀가지도

C. 연구절차

1. 연구대상 어린이집과 이슬반 선정과정

연구대상지를 선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연구자는 연구를 할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외부인이며, 관찰대상에 관한 모든 것 -그들의 경험 및 그들을 둘러싼 환경 등- 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므로 연구 대상자는 연구자를 자신들의 세계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공개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본 연구자 역시 연구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다. 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대상지를 선별한 후, 일일이 전화를 걸어 연구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연구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연구 대상이 되는 학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문의드렸다. 그 가운데,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진 기관도 있었고, 본 연구 대상인 만 5세반이 없다는 기관도 있었으며, 본 연구의 주된 관찰시간인 자유선택활동시간에 반끼리 이동하여 활동한다는 기관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많은 대상지를 포기해야 했다. 마지막 한 군데만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 되자 연구자는 연구를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통화를 시도해야 했다. 연구자의 소개와 연구 목적 및 방법을 간단히 들으신 원장님께서서는 교사들과 의논한 후 다시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였고, 이들이 지난 후 이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곳이 바로 아걸 어린이집이다.

본 연구에 대한 관찰이 7월부터 9월까지 날마다 이루어지고, 오전, 오후 또는 하루 종일 모든 생활을 관찰 및 녹음이외에도 녹화, 면담 등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관입장에서는 허락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장님께서 연구자를 이해하시는 입장에서 관찰과 그 밖의 연구방법에 대해 승낙을 하였고, 이에 대해 연구자는 관찰되는 모든 사실은 본 연구 목적 이외에는 밝히지 않을 것이며 관찰대상은 신변보호를 위해 모두 가명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약속드렸

다. 다행히 조교사도 석사학위 논문을 쓴 경험이 있기에 연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조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연구 일정과 관찰일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주 5회를 기본으로 반일 또는 종일 관찰하는 것으로 하고 어린이집의 일정에 따라 관찰일은 융통성 있게 조정하기로 하였다. 관찰이 시작되면서 원장님과 조교사, 신교사를 비롯하여 다른 반교사들, 그리고 그 외 교직원들 모두 연구자를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배려해주셔서 연구에 열중할 수 있었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이슬반에서 2003년 7월 11일부터 2003년 9월 29일까지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예비관찰은 7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3회 이루어졌으며, 오전, 오후, 종일로 나누어 각각 관찰하였다. 예비관찰 기간 동안 연구자는 연구대상지의 환경에 스스로 적응하고, 교사, 유아들과도 라포(rapport)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처음엔 연구자의 관찰로 인하여 유아들의 생활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걱정도 되었으나 외부인의 출입에 대해 이미 익숙해진 유아들임을 느낄 수 있었다.

조교사: 이슬반 아이들이 사람들에게 관심 없는 것은 아니구요. 3월부터 내내 실습생이 오기 때문에 실습생 경험이 되게 많아서 ‘또 누가 오나’하다가 ‘또 가겠네’ 이런 것들이죠. 한달에 2명씩은 거의 있어요. 와서 한 주 정도는 아이들하고 얘기 안하고 관찰만 하고 2주부터는 수업활동을 해보고 가는 식이죠. 그러다보니 누군가 다른 교사가 있는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교사가 와서 즐겁게 놀아줄 수 있는 편하게 있는 교사가 아니라 뭔가 공부한다는 사람 인걸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면담, 2003. 8. 14)

이러한 배경 탓인지 유아들은 관찰자가 약기하는 모습에도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첫날 몇 명이 ‘누구세요?’, ‘왜 왔어요?’라는 질문을 하는 정도였다. 때문에 아이들의 큰 주목이나 관심을 받지 않고 그들 곁에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었고, 서로에게 익숙해지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예비 관찰기간 동안 관찰자는 이슬반 유아들의 이름을 익히고 이슬반의 대략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관찰은 2003년 7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총 30회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활동 속에 나타나는 유아들의 모습을 관찰하기 위하여 유아들이 등원하는 9시부터 귀가하는 6시까지 모든 활동에 참여하여 관찰하였다. 이 중 오전활동에 대한 관찰이 21회, 오후활동에 대한 관찰이 9회 실시되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연구 대상자들과 함께 보냄으로써 편안함, 친숙함, 신뢰감을 쌓고 비형식인 관계를 맺는데도(Bogdan & Biklen, 1982) 도움이 되었다.

Spradley(1980)가 말한 공간, 행위자, 활동, 물체, 행위, 사건, 시간, 목적, 느낌의 아홉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현장약기를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녹음을 항상 착용하고 다니며 유아들의 상호작용을 빠짐없이 담고자 하였다. 또한 유아들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이나 표정 그리고 분위기, 상황 등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하여 비디오 촬영을 6회 실시하였다. 녹음과 비디오 촬영한 자료는 약기한 것을 참고하며 그날 그날 전사하였고 전사본에 좌우 여백을 두어 느낌이나 의견 등 추가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놓았다. 이와 더불어 관찰한 하루를 되짚어보고 반성하는 의미로 노트에 적은 관찰일기는 다음 관찰에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와 관찰목적을 잊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다.

유아들의 세계로 들어가 관찰하면서 연구자는 유아들의 문제상황에 어느 정도로 또 어떤 형태로 참여해야 할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관찰자의 영역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연구자 못지않게 유아들도 연구자의 관여를 기대하기보다는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간혹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시에도 교사 4명의 눈 밖을 거의 벗어나지 못하였으므로 연구자로서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가능하였다.

면담은 유아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담임교사와 부담임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3회의 형식적 면담을 하였다. 그 외에도 관찰이 끝난 후 의문점 등이 있을 경우, 비형식적 면담을 행하였다. 면담은 하루 일과가 끝난 후 교실 및 교사실에서 이루어져 조용한 가운데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루어졌다. 교사면담은 관찰자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전후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찰자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이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밖에도 어린이집의 현황, 연령별 교육 프로그램, 연간 교육계획안, 교사교육, 부모교육 등을 한데 연간보고서 책자는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 자료분석

분석은 본질적으로 어떤 것을 분해하는 걸 뜻한다. 그리고 분해된 각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Stake, 2001). 문화기술적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 만들어진 복잡한 의미들을 풀고 명료화하게 된다. 분석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다면, 분석이 자료수집과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와, 분석 전에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동안 연구자가 발견하는 내용에 대한 반성적 활동 역시 질적연구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에 속하므로 후자의 경우도 엄격한 의미에서 자료수집과 분석이 분리된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Bogdan & Biklen, 1982).

본 연구의 자료분석 역시 자료수집과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현장 약기와 녹음자료, 그리고 녹화자료들을 전사하고 그 내용들에 대한 관찰자의 생각 및 의견을 적어두며, 연구일기를 통해 반성하는 과정으로 분석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분석한 자료 웹망 짜기, 관련된 내용 범주화 하기의 과정을 반복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인 또래관계에서의 경쟁내용과 경쟁

전략으로 상위범주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경쟁내용의 하위범주로 능력, 소유권, 경험, 소유량, 재미·흥미 추구, 애정, 참여기회, 인기있는 역할, 인정을 하위범주로 하였고, 경쟁전략으로는 목표획득을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대결, 협박적 언행, 과장된 언행, 물리적 힘 행사, 설득, 속임수 사용, 협력으로 하위범주를 만들었으며, 각각의 하위범주도 내용의 성격에 따라 여러 차례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표시하기 위해 범주화되는 자료에 색깔 탭과 축약기호를 이용하여 부호화 범주를 나타내었다. 전사본에는 번호를 붙여 각각의 범주로 코딩하였고, 범주에 따라 분류된 사례를 다시 읽어가며 해석하는 작업을 하였다. 또한 해석에 있어서는 관찰자의 주관적, 직관적 느낌에 치우치지 않도록 분석자료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들었으며, 관찰된 사례를 놓고 유아들이 무엇을 놓고 경쟁하는 것인지에 대해 같은 시기에 연구를 하던 연구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참고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책, 신문, 인터넷 자료 등의 매체를 자주 접함으로써 사고의 폭을 넓히고자 노력하였다.

IV. 이슬반의 또래 경쟁 내용

다양한 욕구를 지닌 유아들은 자신과 유사한 욕구를 지닌 또래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정된 목표를 두고 겨뤄야 하는 상황을 종종 경험하게 되며, 비교심리에 의해서 비교 준거가 되는 또래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또는 우월감을 획득하기 위하여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이슬반 유아들 역시 이러한 경쟁적 목표를 두고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내용으로 겨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쟁은 유아 자신의 자아개념 형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슬반에서 나타난 경쟁적 상황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유아들이 겨루는 경쟁내용은 능력, 소유권, 경험, 소유량, 재미·흥미 추구, 애정, 참여기회, 인기있는 역할, 인정, 기타로 나타났다. 만 5세인 이슬반 유아들은 물질 자원에 대한 욕구 못지않게 사회 지향적인 욕구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이슬반 유아들이 또래 간 경쟁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심리적 욕구에 대한 파악을 중심으로 무엇을 이기고, 무엇을 획득하려는 것인가의 경쟁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A. 능력

능력이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으로 이슬반에서는 지적, 사회적, 신체적 능력 등 다양한 능력에 있어서 또래 간 경쟁을 벌이는 상황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상대방의 능력이 자신보다 높은지 낮은지의 능력수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상대방도 갖고 있는지의 능력소유 여부, 능력을 갖고 있다면 누가 먼저 갖고 있었는지의 능력 우선권에 관한 비교를 통하여 상호간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쟁을 벌이곤 하였다. 유아들의 능력과 관련된 경쟁은 개별게임이나 집단게임과 같이 주로 승부를 가리는 놀이상황에서 일어났으며, 이 외에도 활동

에 있어서 결과물을 비교하거나 상대방의 능력 자랑에 대해 맞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관찰되었다. 다음은 언어영역의 게임활동에서 3명의 유아들이 승부를 겨루는 장면이다.

[석준이와 상진이는 빙고게임을 하고 있다.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상진이는 멀리서 다른 친구가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소파에 앉은 영균이는 점수판에 석준이와 상진이의 게임결과를 표시하고 있다. 석준이가 첫 판 빙고를 이긴다.]

석준: (의기양양하게 소리를 지르며) 1점,, 1점. (영균에게) 나 1점 줘야돼.

영균: (점수판을 넘기며 시끄럽게 보채지 말라는 듯이) 알았어.

[상진이는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간다.]

석준: 너무 시시하지? 누구 나랑 할 사람?

서훈: (다른 곳에 있다가 다가오며) 나

석준: 그래. 너 오늘 죽었다. (서훈에게) 넌 빵점이야, 아직도.. 난 1점인데.

영균: 석준, 너 다시 0점이야.

[영균이는 석준이의 점수도 0으로 다시 돌린다. 서훈이와 석준이가 게임을 시작한다. 석준이가 금방 이긴다.]

석준: (웃으며) 빙고! 에. 겨우 이겨냐. 나 잘하지? (영균에게) 야, 2점! 2점이지?

영균: 아니야, 다시 하는 거니까 1점이야.

(관찰, 2003. 7. 26)

석준이와 상진이는 다른 곳에서 누군가 불러도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게임에 열중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친구들과의 놀이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보다도 상대를 이기고 점수를 획득하고자 하는 승부욕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상대방보다 앞서고자 하는 목적 하에 게임을 통해 그들의 능력을 서로 겨루고 있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석준이는 상진과의 게임이 끝나자마자 1점을 달라며 점수에 대해 언급하고, 서훈과의 게임에서도 내내 점수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점수는 곧 그들 능력의 결과를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슬반 유아들은 승부가 가려지는 판게임을 통해 그들의 게임능력을 서로 겨루게 된다. 그리고 놀이에 있어서 경쟁적이 되고, 이기고 지는 것에 연연해하

는 모습이 보인다.

최기영(2002)은 승부에 대한 집착은 단순히 승패 결과에 대한 관심뿐만이 아니라 아동 자체에 대한 평가로 확장된다고 하였다. 이슬반에서도 게임의 승부결과는 상대방의 게임 능력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게임 상황에서 따돌려지거나 게임 시 순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의 차별로 이어지기도 한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상진이는 게임에서 지자 말없이 자리를 떠남으로써 자신이 진 상황을 회피하려 하였고, 이에 대해 석준이는 상진이보다 자신의 실력이 좋다는 것을 자랑하듯 친구들 앞에서 ‘너무 시시하지?’라고 말한다. 반면 첫 게임에서 승리한 석준이는 의기양양해져서 두 번째로 겨루게 될 서훈이에게 ‘너 오늘 죽었다’라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및 상대의 기를 꺾으려고 하였다. 이처럼 능력경쟁의 결과는 승자에게 상대적 우월감과 자신감, 자기 효능감 기대를 가져오기도 한다.

능력경쟁은 지식의 소유여부를 놓고도 일어남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쓰기영역에서 유아들이 지식의 유무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장면이다.

[서훈이와 근혜가, 그리고 정민이가 쓰기영역에서 친구 생일선물로 줄 그림을 그리고 있다. 유아들은 교사가 준비해준 다양한 색깔의 색연필을 사용하면서 새로 본 색깔들에 대해선 신기한 듯 쳐다보기도 한다. 그러던 중 서훈이가 아이들에게 연보라색의 색연필을 들어 보이며 이 색깔을 처음 봤을거라고 우쭐댄다.]

서훈: (연보라 색연필을 꺼내며 아이들에게) 이 색깔 못 봤지?

근혜: 그거 나 봤어. 연보라색.

서훈: 거짓말

근혜: 진짜야. 봤는데 안 사용한거야.

서훈: 거짓말

근혜:.... (잠시 후 연한 자주빛 색연필을 들고) 이건 무슨 색인데?

서훈: 나 몰른다고

근혜: 나 안다고

서훈: 그럼 내가 영어로 뭐야?

근혜:...

서훈: 거..봐.. 모르면서.. 바보
 정민: 너도 모르면서 왜그래?
 서훈: 야, 그럼 자동차가 영어로 뭐야?
 정민: 'car'
 근혜: 'car'
 서훈: (근혜에게) 야, 너 왜 가르쳐줘? 야, 메뚜기가 영어로 뭐야?
 근혜: 자기도 모르는 문제를 내면서..
 정민: 자기가 아는 문제를 내야지.
 서훈: 그럼 자전거가 영어로 뭐야?
 정민: bike
 서훈: 어.

(관찰, 2003. 8. 18)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대결하는 상황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많이 아는 점을 내세우거나 상대방이 대답을 못하게 함으로써, 상대의 자존심을 꺾고 기를 죽여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최상진·박정열·이장주(1997)는 한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쭐대는 경우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식, 유능 자랑꺼리가 있을 때'가 1위로 가장 많았다. 비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이긴 하지만 이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우월감을 갖거나 상대를 비하하게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한편 능력 경쟁은 또래 관계에서 사회적인 능력을 두고도 일어나고 있었다. Zigler(1978)는 사회적 능력이란 개인이 환경과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면서 다른 아동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능력 또한 그 내용에 속한다고 언급한다.

다음 사례는 유아들이 사회적인 능력을 두고 겨루는 한 장면이다.

[보현이는 친하게 지내던 주영이와 다투면서 현관에 도착하였다. 평소 보현이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세빈이는 이 광경을 보고, 친구들과 앞에서 보현이를 자신의 생일에 초대할거라며 보현이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 이에 보

훤이는 큰 소리로 세빈이는 자기편이라며 자신의 사회적 능력에 자신감을 나타낸다. 실외놀이터로 나가기 위해 현관에서 여아들이 신발을 신고 있다.]

세빈: 오늘 내 생일이니까 오늘 보훤이 초대할거야.

보훤: 맞아. 세빈인 내 편이야.

채린: 세빈아, 나는?

지연: (연진을 보며) 나는 애네 집에 가기로 했어. 그치 연진아?

(관찰, 2003. 8. 14)

채린이는 자신만 초대받지 못함으로 인해 오는 소외감에 대한 불안감으로 세빈에게 ‘나는?’ 하고 묻는다. Maslow가 제시한 것처럼 인간에겐 소속의 욕구가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자존심이 상하거나 불안을 느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자존심 강한 지연이는 이에 지지 않으려는 듯 자신도 다른 친구의 집에 가기로 했다면서 맞선다. 보훤이의 사회적 수용 능력에 맞서 자신도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타인보다 열등하거나 남들에 비해 자신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다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열등의식을 형성하게 되고, 열등의식이 형성되면 유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자신의 약점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 보완하려는 보완적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유아에게서 나타나는 경쟁의 심리과정인 것이다(안영진, 1995). 이밖에도 유아들은 자신이 알고 있거나 자신과 친한 사람들을 거론하며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유능함을 내세우는 내용으로 겨루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관찰, 2003. 8. 6).

이처럼 유아들의 능력과 관련된 경쟁은 게임상황과 같이 경쟁성을 내포하고 있는 의도적인 환경에 의해 발생되기도 하고, 개별적인 성향에 의해 경쟁심이 발동하여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능력 면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일은 개인적으로는 우월감을 갖고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능력에 의한 평가를 중시하는 현대의 사회·문화적인 분위기로 미루어 볼 때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므로 유

아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본다.

B. 소유권

소유권의 사전적 정의는 목적물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하는 등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곧 어떠한 유체물(有體物)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말한다(국어대사전, 1976). 이슬반 유아들 역시 학급규칙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 대여, 처분 할 수 있는 지배권이 있으므로 물건소유로 인한 경쟁의 내용을 소유권으로 보고자 한다.

이슬반에서는 소유권이 아직 부여되지 않은 물건을 서로 차지하려는 소유권 확보뿐만 아니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상대방의 물건을 두고 벌이는 소유권 쟁탈, 상대방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자 벌이는 소유권 확대의 경쟁이 관찰되었다. 다음은 소유권 확보를 놓고 벌이는 경쟁상황이다.

쌓기영역에서 놀이를 끝내고 나가려던 지섭이가 함께 놀던 친구들에게 자신의 장난감을 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서로 장난감을 차지하려는 경쟁적 구도를 볼 수 있다.

지섭: (케넥스 블록으로 만든 자동차를 손에 들고) 누구 이거 가질 사람~

재현, 혜원: (모두 쳐다보며 손을 든다.) 나.

지섭: 가위바위보 해.

혜진: 아까 나 준다고 했잖아.

지섭:

[지섭이가 갈등하는 동안 재현이와 혜진이는 손을 계속 올린 상태로 지섭이와 상대방을 번갈아가며 쳐다본다. 한참동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지섭이는 유아들을 둘러보다가 자동차를 혜진이에게 건네준다.]

재현: (지섭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야, 가위바위보 하랬잖아.

지섭이는 대꾸하지 않고 슬그머니 쌓기영역을 나가버린다.

재현: (자동차를 가지게 된 혜원에게 다가가) 야, 너 나 싫어한다고?

혜진: 어.

재현: 그럼 너랑 안놀아줘.

(관찰, 2003. 8. 25)

하나 밖에 없는 지섭이의 자동차 장난감을 갖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지섭이의 ‘누구 이거 가질 사람~’과 같은 선발형태의 질문은 재현이와 혜진이로 하여금 더욱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만들고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섭이가 공평하게 ‘가위바위보’ 할 것을 제안하지만 이미 재현이와 팽팽한 경쟁구도 속에 있는 혜진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놀이 중에 지섭이가 했던 말을 상기시키며 자신이 장난감을 가져야 함을 주장한다. Thomas와 Klimann(1974)이 경쟁은 주장성 측면은 높지만 비협조적인 성격을 띤다고 언급했듯이, 혜진이와 재현이는 소유권 확보를 두고 조금의 양보도 없는 민감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장난감의 소유권은 혜진이가 획득하게 되고 재현이는 속상한 마음에 혜진이에게 감정적으로 다가가 관계의 악화를 표시하며 장난감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나타낸다. 이처럼 상호간에 양립할 수 없는 목표물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을 할 때 경쟁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슬반 유아들 사이에선 소유권이 이미 누군가에게 확보된 상황에서도 그 소유권을 획득하고자 경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음은 역할놀이 영역에서 역할에 따른 소품의 소유권을 쥐고 두 명의 유아가 다툼을 벌이는 장면이다.

[역할영역에 놓인 아이스크림 가게 점원용 모자를 종석이를 비롯한 몇몇 유아들이 쓰고 있다. 쌓기놀이를 끝내고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가 한창인 역할 영역에 들어온 주영이는 가게 점원 역할을 함께 하다가 다른 친구들이 쓰고 있는 점원 모자를 자신도 쓰고 싶었는지 주변을 둘러보며 모자를 찾는다. 하지만 주영이까지 쓸 수 있을 만큼 모자는 많지 않았고 이에 주영이는 평소 자기주장이 약한 편인 종석에게 다가가 모자를 달라고 떼를 쓴다. 주영이는 종석이가 쓰고 있는 모자를 쓰고 싶어한다.]

주영: (종석에게 다가와) 나 쓸께.

종석: 싫어.

[주영이는 뺏으려고 하고 종석은 빼앗기지 않으려 욕심각신한다.]

주영: (큰 소리로) 선생님, 종석이가 안빌려줘요.

종석: 친구가 하고 있는데 왜 뺏어?

주영: 선생님, 종석이가 안빌려줘요.

[종석은 모자를 벗어 그냥 주영에게 주고 간다.]

(관찰, 2003. 8. 6)

종석이는 주영이의 요청에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짜고짜 자신의 모자를 빼앗으려는 주영이에게 맞서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물건에 대한 주영이의 강한 소유욕구가 소유권 쟁탈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특히 한정된 수량이나 제한상황은 물건을 가지고 싶어하는 주영이의 욕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종석이가 사회적인 힘이 약한 아이라는 걸 감안할 때(교사면담, 8. 14) 상대방의 사회적인 위치도 주영이의 욕구를 실천으로 옮기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박성주(2001)는 사회적 힘의 부정적 사용 양상인 ‘뺏기’는 사회적 힘이 약한 유아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종석이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경쟁하다가 결국 주영이의 거센 공격과 협박에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버린다. 소유에 대한 강한 욕구는 소유권 쟁탈이라는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혹 자원이 풍족하면 협동을 하지만 자원이 부족하면 경쟁을 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심우엽, 2000) 이슬반의 소유권 경쟁은 자원이 풍부한 상황에서도 일어남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조형영역에서 유아들 간에 활동 재료를 놓고 소유권을 다투는 장면이다. 유아들은 자료의 공평한 분배를 주장하며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펴나간다.

[보현, 도경, 채린, 소혜가 수첩을 만들고 꾸미고 있다. 부담임 교사가 다양한 색의 반짝이 별 스티커를 준비해준다.]

도경: 앗, 스티커다.

[여아들은 스티커 주위로 모여들어 너도나도 스티커를 가져다 붙인다.]

[잠시 후,]
 [연진이가 스티커를 많이 집는다.]
 채린: 많이 가져가면 어떻게 해?
 도경: (연진에게) 너 많이 쓰면 어떻게 하나? 친구들 못쓰잖아 그러면(채린에게) 그치?
 [채린이는 자신도 많이 붙였으므로 수첩을 뒤로 숨긴다.]
 연진: 윤채린도 많이 썼잖아.
 [도경이는 채린이를 본다. 채린이는 자신의 수첩을 보여주며 웃는다. 도경이는 잠시 민망한 듯 웃다가 곧 이야기 한다.]
 도경: 야,, 난 못썼잖아. 하나 둘 셋... 아홉 개야. 너는 (연진의 것을 세며) 하나 둘... 열 셋.
 채린: 난 20개.
 보훤: 20개? 20?
 [채린은 미안한 듯 웃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인다.]
 보훤: 윤채린 너무 많이 썼다.
 도경: 난 몇 개인 줄 알아? 너네 보다 조금이야 조금. 봐봐. 12이야.
 보훤: 내가 더 적다 적어. 하나 둘.. 여덟 개야.
 [채린이는 미안한지 상자에서 스티커를 애써 찾아 한 두 개 발견하면 도경에게 준다. 채린이가 준 스티커들을 모두 붙이고 난 후 도경은 세어본다.]
 소혜: (도경이 것을 보며) 니가 [나보다] 더 많아. 나는 14개
 채린: (이젠 좀 당당하게) 난 21개.
 [잠시 후엔 누가 더 많아? 로 대화가 바뀐다.]
 연진: 난 26개다.
 도경: 난 하나 둘... 스물 다섯.
 연진: 나보다 없네

(관찰, 2003. 8. 14)

신교사는 조형영역에서 수첩을 만들고 있는 유아들에게 별 스티커를 듬뿍 내어준다. 순간 유아들은 우루루 몰려들어 맘에 드는 색깔의 스티커를 앞다투어 고르다가 스티커가 많이 있음을 알고 여유있게 수첩 꾸미기에 열중한다. 그러던 중 연진이 스티커를 많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 채린이가 지적하게 되고 이에 도경이도 연진에게 ‘혼자만 많이 사용하면 다른 친구들이 못쓰게 된다’며 나무란

다. 도경이의 흥분된 모습에 채린이는 슬그머니 자신의 수첩을 숨김으로써 스티커를 많이 사용한 사실을 감추려 한다. 오히려 연진이를 지적했던 채린이가 아이들 가운데 가장 많이 스티커를 사용했던 것이다. 즉, 자원을 많이 소유하고 싶은데 상대가 자원을 많이 획득하면 할수록 내가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경쟁심이 발동한 것이다. 풍부한 자원에 있어서는 자원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걱정보다는 내가 얼마나 많이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양적 문제가 부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들은 누가 더 스티커를 적게 사용하였는지를 따지며 많이 사용한 채린이에게 눈치를 준다. 미안한 마음이 든 채린이는 도경이에게 원하는 색깔의 스티커를 계속해서 찾아주고, 나머지 유아들도 앞다투어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한다. 스티커가 적었던 유아들이 어느 정도 붙이고 나자 갑자기 대화는 ‘누가 더 스티커가 많은지’로 바뀌게 된다.

이현송(2001)은 소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소득 자체가 가져오는 욕구충족보다, 주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소득이 높다는 사실이 더 큰 만족을 가져오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는 상대적 비교를 통한 우월감이 만족을 더욱 높인다는 걸 뜻하는 것으로, 이슬반 유아들이 상대방의 소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자신의 소유권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은 상대를 우월하고자 하는 경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유권과 관련된 유아들의 경쟁은 자원의 확보를 둘러싸고, 필요요구나 소유욕구, 우월욕구에 의해 일어나며, 자원의 많고 적음뿐만 아니라 유아들의 경쟁성향이나 경쟁적인 분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 경험

경험이란 실제로 보고 듣고 겪은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국어대사전, 1976) 이슬반 유아들은 경험 여부를 놓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경험에 대한 경쟁은

그 자체만을 가지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나, 이슬반에서는 주로 이미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기고자 사용하는 전략으로 또 다른 경쟁을 제시할 때 그 새로운 경쟁의 내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유아들이 간식을 먹으며 각자 경험을 뽐내는 장면이다. 처음 주호가 이사를 간다는 이야기를 시작하자 아이들은 자신들도 이사경험이 있음을 앞다투어 이야기한다. 모두 경험이 있음을 이야기하자, 현성은 자기는 호텔에도 가봤다며 아이들과 구별되는 경험을 자랑스럽게 하나 더 제시한다. 영균이 또한 지지 않으려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외에 호텔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부연 설명한다. 상대방의 경험을 그대로 인정해주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겨루고 있는 것이다.

주호: 나 진짜 많이 자면은 이사가

현성: 나는 언제 옛날에 가봤어. 이사

영균: 나두야.

현성: (큰 소리로) 난 호텔 가봤다. 왜?

영균: 난 호텔 세 번 가봤다...(잠시 후) 호텔에서 아예 자는 사람도 있어.

현성: 알어.

(관찰, 2003. 9. 26)

유아들은 상대방의 경험을 인정해줄기에 앞서 상대방의 경험이 자신에게 주는 심리적인 위축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데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유아들의 마음은 위의 상황에서처럼 상대와 동일한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거나 또다른 경험을 제시함으로써 상대와 동등한 위치 또는 더 나은 위치를 확보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즉, 상대방이 가지지 못한 경험이 내게 있다는 사실에 대해 스스로 상대적인 만족감과 우월감을 갖게 되는 반면, 상대방이 가진 경험을 내가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적인 불만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경험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경쟁하는 것이다.

다음은 유아가 학원에 다니는 경험 여부를 통해 상대를 앞서려고 하는 상황이

다. 아윤이는 좁전에 있었던 친구들과의 언쟁에서 자신이 불리하게 끝난 것에 대해 자존심이 상했는지 다시 소혜와 지혜에게 다가가 언쟁했던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학원얘기를 꺼낸다.

[아윤이는 역할영역에서 놀이를 하다가 소혜랑 지혜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약간의 언쟁을 한다. 잠시 후 아윤이는 다시 소혜와 지혜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 갑자기 다그치듯 학원얘기를 꺼낸다]

아윤: (소혜와 지혜에게 갑자기) 그리고 나중에 피아노도 안다닐거면서. 지금 피아노도 안다니면서.

소혜: 나, 다닐거야.

지혜: 나도 8살 되면 다닐거야. 엄마가 나 하고 싶을 때 배운다고 했어.

아윤: 난 지금 다닌다.

(관찰, 2003. 8. 25)

아윤이는 평소에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존심이 상했을 때 학원 얘기를 꺼내곤 하는 걸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이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경험을 내세움으로써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나음을 알리고 스스로 확인함으로써 자존심을 회복하고 상대를 이기려는 경쟁인 것이다. 사교육을 따로 받는 유아들이 소수인 이슬반의 배경을 생각해볼 때(교사면담, 2003. 8. 14) 학원을 다니는 일은 남이 가지지 못한 경험을 하는 것이므로 아이들 사이에서는 자랑거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소혜와 지혜는 아윤이의 말에 자신들도 앞으로 다닐 거라며 맞서고 아윤이는 또다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현재 시점을 강조하면서 상황은 종료된다.

이처럼 새로운 것에 대해 호기심과 관심이 많은 유아들에게 있어서 경험의 소유는 상대와 비교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경쟁은 인간관계에서 주로 자기 우월의식과 연관되어 나타나게 됨을 볼 수 있다.

D. 소유량

소유량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양적인 개념으로 모든 경쟁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다.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것에 대해 이미 확보한 양을 가지고 겨루는 것을 소유량 경쟁으로 보고자 한다. 이슬반에서는 유아들이 확보한 수량, 크기, 횟수와 같은 양적개념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며 경쟁을 벌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음은 사례들은 수량 비교를 통해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상진: (서훈이에게) 나 이빨 4개 빠졌다.
서훈: 난 6개. 아니 7개 빠지려고 해.
[이때 석준이가 다가온다.]
석준: 야, 너 (장난감) 차있냐. 타는 차?
상진: 나 있어.
서훈: 나도 있어. 너 몇 개 있어?
석준: 40개
상진: 나 50개, 아니 나 70개
서훈: 80개
세명이 동시에: 난 만개
석준: 난 해경만개. 해경만개가 더 많다.

(관찰, 2003. 7. 21)

유아들 사이에서 이가 빠졌다는 사실은 좀더 어른이 되어간다는 뜻으로 으쓱해지는 일이기 때문에(교사면담, 7. 21) 상현이와 창훈이는 서로 자신의 이가 더 많이 빠졌음을 또는 앞으로 빠질 거라는 등의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때 석준이가 들어와 장난감 소유여부를 묻고 이는 곧 수량비교로 이어져 서로 자신이 더 많이 소유하고 있음을 주장하게 된다. 상대방보다 장난감 자동차를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다.

한편 경험의 횟수를 비교함으로써 경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

아윤: 너 제주도 가봤어?

상진: 응

아윤: 난 서울랜드 3번 가봤어.

상진: 난 100번

[~에 가봤냐'는 질문에 상진이는 지지 않으려는 듯 사실을 대답하기 보다는 부풀려 대답을 한다.]

(관찰, 2003. 7. 23)

아윤은 상진이에게 제주도에 가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다. 상진이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곧 자신은 서울랜드에 3번이나 가보았으며 장소를 바꾸어서, 다른 장소에 많이 가본 경험을 내세워 자랑한다. 아윤은 자기의 경험을 자랑함으로써 부러움의 시선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은근히 상진이로부터 제주도에 가본 경험이 없다는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대와 다른 대답을 듣게 된 아윤은 또다른 경험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고, 이번에도 혹시 모를 같은 경험에 대해 차별성을 두기 위하여 3번이라는 경험 횟수를 함께 언급한다. 여기서 횟수가 상대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또다른 대결요소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상진이는 아윤의 질문과 자랑이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열등감을 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100번이나 가봤다'고 부풀려 대답하는 등의 경쟁적인 태도를 취한다. 상진이가 제시한 100번이라는 횟수는 사실적인 수 개념보다는 상대에게 지지 않겠다는 의도를 나타낸다. Adler(1972)는 열등감에 대한 보상행동으로서 경쟁이 나타난다고 했다. 자랑은 자신에게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지만 상대방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열등감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수량이나 횟수뿐만 아니라 크기(2003. 8. 7) 비교는 상대방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걸 알리는 방법으로 종종 이용된다. 따라서 이때 유아들이 제시하는 수는 수 자체로서의 사실적 개념 보다는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개념으로 사용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유량은 유아들 사이에서 비교의 척도가 되므로 상호 간에 경쟁의

식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경쟁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E. 재미 · 흥미

유아들은 재미있고 흥미있는 것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므로 유아교육에 있어서 교육적인 관심과 흥미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이슬반 유아들은 재미와 흥미 요소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을 관찰과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조교사: 예전보다 지금의 (이슬반) 아이들이 집중력이 낮은 편이에요. 흥미 면에서도 확 끄는 거 아니면 잘 안봐요.(중략) 관심있는 거는 막 또 찾아서 할려고 하고 그것만 계속 할려고 하고... 특히 지금 우리 반 아이들은 그런 집착이 많은 것 같아요.

(면담, 2003. 9. 29)

이렇게 교사는 이슬반 유아들이 흥미와 같은 요소에 집착을 한다고 보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유아들의 재미 · 흥미 추구하고 관련된 경쟁도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었다. 게임 시 전반부에 출전하는 것이 후반부에 출전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기 때문에 유아들은 선두에 서려고 앞다투곤 한다. 다음 상황은 팀 게임 시 서로 먼저 선수로 참여하고자 겨루는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한 것이다.

[조교사는 활동실에 게임대형을 미리 만들어 놓은 후 유아들이 스스로 자리를 선택하여 앉도록 하였다. 활동실에 도착한 유아들은 자신이 앉고 싶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순간 분주해지고, 특히 몇몇 유아들은 교사와 가까운 앞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경쟁적으로 달려가 앉았다. 1코스 유아들은 등원하여 자유선택활동을 하다가 게임을 하기위해 담임과 활동실로 내려간다. 몇몇 아이들이 앞자리에 앉으려고 재빠르게 행동하여 자리를 차지한다.]

조교사: 선생님이 너희들 들어올 때 '빨간색 줄 초록색 줄 원하는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했는데 그렇게 앉았니?

석준: (빨간색 줄에 앉아) 빨간색이 제일 많아요.

조교사: 그러면 빨간색 줄이랑 초록색 줄이랑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빨간팀에서 초록팀으로 3명이 가야 한다는 결론이 난다.]

(중략)

[아무리 기다려도 양보하는 아이들이 없다.]

조교사: (기다리다가) 선생님은 기다릴 수 있는데 너희가 계속 앉아 있어야 돼. (잠시 후) 그럼 한 번 물어보자. 빨간색 줄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저기에 왜 가지 싫은 건데? 이유가 있을 거 아냐?

정민: (앞에서 4번째 줄에 앉아 있다가) 여기에서 금방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요.

조교사: 기회는 똑같아. 이쪽 친구나 저쪽 친구가 게임할 기회는 똑같거든. 양쪽이 게임할 때 다른 것은 하나도 없거든.

영균: (초록색 줄의 첫 번째 앉아 있다가) 근데요.. 앞에 앉은 친구가 맨 뒤로 가야하니까요.

조교사: 아,,, 순서가 바뀔 것 같아서? 그런데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게임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슬반? 순서는 바뀔 수가 있어요. 너희가 계속 앉아있으면 게임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래 그럼? 너희가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계속 앉아있어야 해.

(관찰, 2003. 8. 12)

앞자리에 앉은 유아들은 단순히 자리의 위치가 마음에 들어서 그곳에 앉은 것이 아니라, 기다리지 않고 게임에 빨리 참여하여 재미를 느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경쟁한 것으로 이는 정민이와 영균이의 양보하지 않는 이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재미·흥미 추구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경우 목적을 위해 경쟁할 뿐만 아니라 양보가 필요한 상황처럼 목적 추구에 방해가 되는 상황에 대해선 비협조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놀이기회는 기다리면 또 올텐데도, 먼저 하려고 경쟁하는 것은 단순히 이들이 참여기회만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재미와 흥미에 대한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놀이 자체에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것 말고도 이들의 재미와 흥미의 욕구는 놀이하고 있는 친구, 진행되는 놀이주제 등 환경적인 변인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그 놀이를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싶은 욕구, 다시 말해, 지금 이 순간만 추구할 수 있는 재미와 흥미를 위해 경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아들에게 있어서 재미·흥미 추구는 활동의 목적이 될 정도로 중요한 행동 요소가 되므로 이에 방해되는 제한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경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F. 애정

애정이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물 또는 사람에 대한 친근감을 바탕으로 이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느끼는 정서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사랑받고 싶다는지 사랑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데 이러한 정서적 측면이다(두산세계대백과, 2003). 유아는 성장·발달해감에 따라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애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자신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 등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후부터 질투라는 감정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결국 경쟁적 심리가 발달하게 된다(안영진, 1995).

이슬반 유아의 경우, 또래관계에서 애정을 두고 경쟁이 벌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친한 친구나 좋아하는 이성을 두고 일어났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친한 친구를 두고 벌이는 경쟁이 대부분이었는데 다음은 쓰기영역에서 관찰한 장면이다.

[보현이와 송현이는 요즘 부쩍 친하게 지내는 사이다. 특히 이 날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는 둘이 내내 붙어다니며 서로에게 애정표시를 하고, 다른 또래들이 둘 관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배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보현이는 쓰기영역에서 수첩을 만들고 송현이는 옆에서 바라보고 있다. 잠시 후 세빈이가 쓰기영역으로 온다. 세빈이는 보현이가 만든 수첩을 만져본다.]

보현: (세빈에게) 왜 그래? 송현이건데.. 그치?

송현: 응

보현: 내가 미술영역에서 만들어줄게. 알겠어.

세빈: 미술영역에서 만들면 안돼
 보훤: (세빈이 말에 대꾸하지 않고) 송현아, 눈 감아봐.
 [보훤이는 만든 수첩에 뭐라고 적는다.]
 세빈: 보훤아, 나도 만들어주라.
 보훤: 안돼.
 [보훤이는 수첩을 완성 후 '송현이꺼'라며 건네준다.]
 (중략)
 [세빈이는 나가고 유연진이 들어온다. 연진은 보훤이가 쓰는 글자를 보고 있다.]
 보훤: (또 다른 수첩을 만들려고 종이를 보며) 파란 거 해줄까?
 송현: 어, 유연진은 안되지?
 보훤: 응, 안돼.
 보훤: 빼놓아져도 괜찮아?
 송현: 어
 보훤: 어차피 수첩이니까.
 송현: 빼놓아진 수첩도 있어.

(관찰, 2003. 7. 24)

보훤이가 송현이에게 수첩을 만들어주고 있는 위의 상황에서도 다른 또래가 들어왔을 때 이들을 경계를 하며 쌀쌀맞은 태도로 대하고 있다. 서로를 감싸주고, 호의를 베풀며 서로의 마음을 독차지 하고자 애쓰는 둘 사이에 다른 또래의 등장은 둘의 관계를 갈라놓거나 친구의 마음을 빼앗아 갈지도 모르는 불안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서로 상대방을 놓고 다른 또래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다른 또래의 입장에서는 경쟁적 상황으로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보훤이와 송현이의 입장에서는 다른 또래가 자신의 친구를 목표로 한 경쟁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친구와 다른 또래간의 차별적인 대우를 통하여 다른 또래는 따돌리거나 소외시키고 친구와는 상대적으로 더 가깝게 느껴지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Mannarino(1980)는 친구관계에서는 상호성, 균형, 애정, 친밀감, 혜택을 함께 나누려는 시도 등의 특징을 보인다고 했다. 이처럼 친구관계 뿐만 아니라 이성

에 대해 호감을 가진 상태(관찰, 2003. 9. 22)등 애정이 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애정을 독차지 하고 싶은 마음이 원인이 되어 또래 간 경쟁으로 나타날 수 있다.

G. 참여기회

이슬반 유아들은 서로 한정된 기회를 두고 참여하기 위해 겨루거나, 상대방보다 좀더 많은 기회, 유리한 기회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하기도 한다. 유아들이 기회를 두고 경쟁하는 것은 주로 기회자체에 대한 요구가 원인이 되지만 때로는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은 기회라 할지라도 친구를 따라서 또는 다수가 참여하는 분위기속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처럼 동조심리가 작용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한정된 기회를 두고 참여를 희망하는 유아들이 많은 경우에 일어난 경쟁의 모습이다. 이슬반에서는 생일잔치를 할 때 앞쪽에 탁자를 마련하고 그 위에 케익이나 과일 등 많은 음식을 차려놓는다. 음식은 생일잔치가 끝난 후 1층에 있는 식당으로 옮겨지고, 아이들도 손을 씻고 내려가 생일간식을 먹게 된다. 아래의 상황은 생일잔치가 끝나고 교사가 음식을 나르는 과정에서 유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서로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다.

[생일잔치가 일단 끝나고 교사는 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식당으로 나르는 작업을 한다.]

담임: 누구 이것 좀 도와줄래?

유아들: (앞다투어) 저요저요

[유아들은 서로 과일을 나르겠다고 받아 식당으로 내려간다.]

(관찰, 2003. 9. 19)

사실상 학급의 이런저런 상황에서 교사를 도와주겠다고 자청하는 유아들은 필요 인원보다 더 많은 상황이 태반이다. 따라서 어떤 유아들은 큰 소리로 ‘저요’를 외치거나 아예 다른 유아들을 제치고 교사에게 다가가 자신들을 시켜달라고

조르는 적극적 행동을 보인다. 유아들은 기회를 획득한 후에도 상대보다 좀더 많은 기회 또는 좀더 유리한 기회를 얻고자 경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아래 상황은 유아들이 과학영역에 모여 플라스틱 조각칼로 공룡화석을 발굴해 내는 과정이다. 교구가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아이들은 원 대형으로 서로 붙어 앉아 활동하고 있다. 교사가 오늘 처음 소개해준 교구인데다가 ‘공룡’주제와 관련된 것이므로 아이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

[남아5명이 모여 공룡화석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남아1: 여기 안에 들어있데?

남아2: 응

남아3: (붓을 보고) 연필이 꼭 머리카락 같다.

남아4: (멀리 있는 선생님을 부르며) 선생님, 화석 나올려고 그래요.

남아3: 정말 나왔다.

남아4: 야, 어서 끊어.

남아1: 야, 왜 너만해..

[잠시 후, 여아들이 다가온다.]

남아3: 야, 저리가

남아4: 오면 가루 뿌린다.

남아3: 안나가면 눈에 뿌린다.

[이때 담임이 멀리서 정리시간을 알린다.]

(관찰, 2003. 7. 21)

이와 같이 이 활동에 참여하기까지도 서로 간에 경쟁이 있었으나, 참여기회를 얻고 나서도 아이들은 주변에 서서 관심있게 쳐다보는 다른 아이들조차 위협하며 배척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활동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왜 너만해.’ 라며 자신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될 경우를 경계하였다. 이 때 불리한 상황이란 상대보다 안좋은 위치에 있거나, 자리가 비좁아진다거나, 자신에 비해 상대방의 활동 속도가 매우 빠른 등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즉, 상대방에 의해 모두 화석이 발굴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평한 기회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참여기회를 둘러싼 경쟁 역시 희소가치성이 있을 때 경쟁을 더욱 유발시키며, 기회 자체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주변의 분위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회에 참여한 상황에서는 참가자들 간의 비교심리가 작용하여 참여정도 및 참여양상에 대한 경쟁이 일어나게 됨을 볼 수 있다.

H. 인기있는 역할

역할이라는 용어는 본래 연극에서 비롯된 것으로, 배우와 그 배역간의 구분을 강조하는 기능을 가지며, 일반적으로는 개인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특정한 위치를 결정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에서 인정되는 포괄적인 행동 유형이다(두산대백과, 2003). 이에 역할은 이미 정해져서 바꿀 수 없는 생득적 역할과,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얻어지는 획득적 역할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슬반 유아들의 경쟁 내용이 되는 것은 바로 획득적 역할이다. 유아들의 인기있는 역할 경쟁은 극놀이와 같이 배역을 정하는 경우와,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서 볼 수 있었다.

다음은 극놀이 상황에서 배역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아윤이와 종석이가 인형극 놀이영역에 앉아 있다. 이 때 쓰기활동을 마친 성규와 상진이가 놀이를 하기 위해 온다. 성규와 상진은 서로 문어역을 맡고 싶어한다.]

성규: (문어그림을 들고 있는 상진에게)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상진은 문어를 내놓지 않는다.]

성규: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하자구.

[성규와 상진은 가위바위보를 하고 성규가 이긴다.]

성규: 봐봐, 내가 이겼지?

아윤: 야, 한번 더해.

성규: (상진이가 기분 안 좋아보이자) 알았어. 한번더 하란다.

[두 번째 가위바위보에서 상진이가 이긴다.]

성규:

아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한번 더.
 [성규는 다시 하려고 하나 상진은 문어를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성규: (종석에게) 이리 와봐. (컷속말로) 상진이랑 놀지마.
 상진: (이를 보고 문어를 내려놓으며) 나 안할래. (가버린다.)
 성규: 나두.. (이름표를 떼어가지고 상진을 따라간다.)

(관찰, 2003. 8. 7)

성규와 상진이가 문어 역할을 두고 서로 하고 싶어서 겨루고 있다. 처음엔 ‘가위바위보’라는 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을 하지만 성규와 상진이가 모두 결과에 승복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점차 심리적인 갈등상황으로 확대된다. 더구나 상진이는 아예 문어인형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남으로써 더 이상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내내 함께 놀던 둘 사이는 벌어지고 만다. 그러나 계속 친하게 지내던 관계였으므로 곧 둘은 놀이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화해를 하게 된다.

유아들은 서로 친한 사이임에도 역할에 대해 양보하지 않고, 공정한 방법으로 겨뤘음에도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만큼 역할에 대해 집착한다. 유아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자신과 동일시(同一視)함으로써 놀이 속에서 자신의 희망과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므로 인기있는 역할을 두고 경쟁하는 것은 유아의 놀이 속에서 자주 관찰할 수 있다.

역할경쟁은 놀이속의 배역을 맡는 일뿐 아니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를 앞두고 누가 하느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났다.

[유아들은 수영장 놀이를 하려고 교사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
 조교사: (이전의 수영장표 기록을 보며) 어른은 5천원, 어린이는 천원이네.
 학생은 얼마로 할까 그럼?
 연진: 학생은 그냥 천원
 조교사: 그러면 어린이와 학생이 같은데
 지선: 그러면요. 어른을 만원으로 하구요. 학생은 오천원 어린이는 천원.
 조교사: 그렇게 할래? 그럼 여기에 그렇게 적어줄게. 그럼 그렇게 수영장 요금표를 만들어주면 되겠다.

연진: 제가 할래요.
지연: 저도 할래요.
조교사: 어, 같이 해봐. 너희가

(관찰, 2003. 8. 4)

요금표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유아가 좀더 많았다면 더욱 경쟁적인 상황이 되어 양보나 가위바위보와 같은 방법으로 선별해야겠지만 다행히 2명이므로 교사는 같이 할 것을 허락한 듯하다. 그래서인지 연진을 따라 지연이 지원했을 때는 잠시 경쟁적인 긴장감이 들었으나 교사의 말에 들은 안심하는 표정으로 서둘러 조형영역으로 가서 요금표 만들 준비를 한다. 이처럼 또래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유아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해도 나와 같은 욕구를 가진 누군가가 있기에 이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선 그 일을 내가 해도 된다는 사회적 승인-역할-이 필요하고, 그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역할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인기있는 역할에 대한 경쟁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다수와 같은 욕구를 지닌 내가 원하는 위치를 확보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겨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 인정

김유진·임충기(2002)는 우리는 타인들과 어울리고, 타인들에게 수용되고, 타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자존심이 높아지게 되므로 우리의 사회적 행동은 대부분이 소속감-사회적 수용과 사회적 일체감을 얻으려는 노력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사회적인 욕구는 더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고(한영춘·권기성, 1980),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이슬반 유아들의 경우 주로 자랑하기, 우쭐대기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인정받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외에도 비교상대를 두고 자신을 부각시키

는 일과 같은 경쟁적 모습을 함께 관찰 수 있었다. 다음은 친구를 경쟁상대로 바라보고 자신의 능력을 차별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인정받으려는 사례로서 조형 영역에서 관찰되었다.

[유아들은 수첩을 만든 후 반짝이 별 스티커로 꾸미기를 한다.]

도경: (스티커를 붙이면서) 난 이렇게 해야지. 윤채린 (붙인 것을 보여주며)

난 이렇게 할 건데 따라하지마.

채린: 난 다르게 할거야.

(관찰, 2003. 8. 14)

도경이와 채린이가 각각 자신이 만든 수첩에 스티커를 붙여 꾸미기를 하고 있다. 도경이는 자신이 어떻게 꾸밀 거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채린에게 따라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이에 자존심이 상한 채린이는 다르게 할 거라며 뽀로통해진다. 도경이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채린이에 대해 이러한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자기만의 멋진 솜씨를 나타냄으로써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즉,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사람의 생각보다도 멋진 생각이 필요한데, 나의 생각을 상대방이 따라하게 되면 독창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동시에 가치가 떨어지고, 설사 상대방이 나와 똑같이 하지 않는다 해도 내 것을 응용하여 더 잘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가 자신과 비슷해지거나 더 나아지는 일이 없도록 심리적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밖에도 유아들은 자신이 관여된 활동에 있어서 인정받을 만한 성과가 있는 경우, 함께 활동한 상대에 비해 자신의 공이 크다는 것을 내세우는 등(관찰, 2003. 7. 23)의 방법을 통해 인정에 대한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이처럼 인정을 두고 벌이는 경쟁은 비교대상을 놓고 자기 고유의 영역 보존 및 상대적 우위 점령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방법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이슬반에서 일어나는 경쟁 내용을 능력, 소유권, 지식 및 경험, 소유량, 재미·흥미 추구, 애정, 참여기회, 인기있는 역할, 인정의 9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유아들 간에 일어나는 경쟁은 물질적 뿐 아니라 사회적 욕구

등 다양한 심리적 욕구와 목표 추구 사이에서 복합적인 내용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제한된 환경이 맞물려 일어나기도 하고, 비교심리와 같은 사회적 심리가 반영된 내용으로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경쟁내용을 토대로 유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V. 이슬반의 또래간 경쟁 전략

경쟁은 유아들의 욕구와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구조 사이에서 벌어지는 민감한 상황이다.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상황을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또래간의 관계, 자아개념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이슬반 유아들은 경쟁 상황에서 자신의 목표를 획득하고자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모두 12가지 유형이 관찰되었다. 공정하게 겨루기, 다른 경쟁거리 제시하기, 민첩하게 움직이기, 고집부리기, 상대방 약점 찌르기, 말로 협박하기, 과장하기, 물리적 힘 행사하기, 권한 주장하기, 협상하기, 속임수 사용, 협력, 기타 가 그것이다. 관찰된 전략은 그 성격에 따라 대결, 협박적 언행, 과장된 언행, 물리적 힘 행사, 설득, 속임수 사용, 협력의 7가지 범주로 정리하였다.

A. 대결

대결 전략은 경쟁적인 상황에서 양자가 맞서서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겨루기, 다른 경쟁거리 제시하기, 고집부리기, 민첩하게 움직이기로 나타났다.

1. 공정하게 겨루기

공정하게 겨루기는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룰 것을 함의한 상황에서 양자간 직접 겨루는 경우와 타인의 개입에 의해 간접적으로 승부를 가리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전략은 유아들이 주로 소유권이나 우선권을 둘러싸고 제안하며, 제안을 받은 상대방도 흔쾌히 동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교사가 상황에 개입된 경우, 교사에 의해 ‘양보하기’ 대안이 선택사항으로 제시되나 이 때 유아들은 주로 양보가 아닌 대결 방법을 택하였다(관찰, 2003. 8. 14). 또한 공정하게 겨루기 위한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대부분 습관처럼 가위바위보나 다수결 방

법에 동의하는데 간혹 스스로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빼기’ 등처럼 본인이 자신있는 방법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관찰, 2003. 8. 14).

다음은 양자간에 직접 겨룰 수 있는 ‘가위바위보’를 통하여 경쟁을 하는 상황으로 역할영역에서 관찰되었다.

조교사: 표 파는 사람은 누가 할거니?

유아들: 저요(손을 든다.)

[정원이 2명인데 3명이 손을 든다.]

조교사: 표 파는 사람은 2명인데 3명이 나왔네. 어떻게 정할래?

아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를 해서 아윤이 진다.]

아윤: (교사에게) 주먹, 가위 중 누가 이긴 거예요?

조교사: 주먹이 이긴 거란다.

[아윤은 시무룩해져서 다음 역할들도 모두 포기하듯 보고만 있다.]

조교사: 안전요원은 누가 할거니?

[역시 가위바위보로 주영이가 선정된다.]

조교사: 그럼 주영이가 앉아서 보고 있다가 위험한 사람은 구해주는 거예요.

조교사: 음식파는 사람

다래: (손든 사람을 파악한 후) 3명 딱 맞아요

조교사: 그럼, 너의 3명은 앞치마 입고 저기 음식 파는 곳으로 가서 앉아있으세요. 그럼 나머지는 모두 손님을 ..(아윤이가 시무룩해있자) 아윤이는 할거야, 안할거야? 아윤이 아까 가위바위보로 해서 결정된 거잖니?

(관찰, 2003. 7. 26)

유아들은 역할영역에서 수영장 놀이를 하기 위해 교사와 함께 입장권도 만들고 필요한 역할도 정하는 등 분주하게 준비를 한다. 위의 상황은 준비가 끝나고 놀이를 시작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는 가운데 자신이 좋아하는 역할을 맡기 위해 경쟁하는 장면이다. 표 판매원의 정원이 2명인데 반해 그 역할을 맡고 싶어하는 유아들은 3명인 상황에서 교사는 유아들에게 해결방법을 맡기고 있다. 이

에 아윤이는 ‘가위바위보’라는 공정한 방법을 제시하고 나머지 유아들도 동의를 한다. 만일 양보를 한다면 교사에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아이들은 칭찬보다 자신의 목표물을 획득하려는 욕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윤이는 자신이 ‘가위바위보’에서 짐으로써 하고 싶었던 역할을 못 맡게 되자, 교사에게 ‘주먹, 가위 중 누가 이긴 거예요?’라며 자신이 진 상황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가위바위보’는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다시 하면 자신이 이길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남기므로 아윤이는 진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 못하고 혹시 다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교사에게 이미 알고 있는 물음을 던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종료되고 결국 아윤이는 끝까지 시무룩한 모습으로 있다가 교사가 정당하게 겨워서 결정된 것임을 다시 확인시키자 마지못해 손님역할을 한다.

다음 사례는 타인의 개입에 의해 간접적으로 승부를 가리는 다수결에 의해 경쟁을 하는 상황이다. 쌓기영역에서 놀이를 준비하고 있는 유아들은 서로 다른 놀이를 계획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다. 서훈이는 교사도 자동차길 만드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의견에 힘을 실어보지만, 다가온 교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유아들끼리 정해보도록 결정권을 넘겼다.

[찬호는 지삽이와 블록으로 비행장을 구성하고 있다. 서훈은 수혁과 다른 쪽에서 자동차길을 만들고 있다.]

(중략)

서훈: 야, 비행기장 우리 안 만들어.

찬호: 만들어. 그치? (지삽이가 끄덕인다.)

서훈: 예. 안 만들어. 자동차길 만들어.

지삽: 자동차길 안 만들거야. 그치?

찬호: 어.

서훈: 이거 비행기장 아니야. 선생님이 자동차길 만든다고 그랬어.

신교사: (다가와서) 몰라. 너네가 정해.

서훈: (주위 아이들에게 동의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야, 자동차 만들기. 자

동차 만들기..(몇 명이 손을 들자) 우리가 벌써 정했어. (그러나 확실
치 않음을 알고 다시 한명 한명에게 다가가 물어본다.) 야, 너 자동차
길 만들거야. 비행기장 만들거야?

[처음엔 비행기장과 자동차길에 동의하는 수가 같았는데 서훈이가 큰 소리
를 내며 다가가 묻자 자동차 길에 찬성하는 입장이 더 많아졌다. 형진, 수
혁, 서훈, 석준이 모두 자동차 길 편이다. 반면 비행기장 팀은 찬호와 지섭
뿐이다.]

서훈: (자동차팀이 더 많은 걸 보고) 됐어. 우리가 정하자. 우리 4명이야.
그러니까 비행기장 안 만들어야지.

찬호: 만들거야.

석준: 선생님, 비행기장 안 만들어야 돼죠? 애네 비행기장 만들려고 해요.

(관찰, 2003. 8. 12)

서훈이는 이제 찬호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이 실행 가능성 면에서 동등한 위치
에 있음을 알고 쟁기영역에서 놀이하려고 모여든 유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다
수결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실, 쟁기놀이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위바
위보’와 같은 개별적인 대결은 의미가 없는 것이며, 놀이를 하게 될 유아들의 의
견에 따라 놀이 주제가 달라질 수 있음을 그간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 판단한 것
이다. 또한 서훈이는 의견을 반영하게 될 유아들이 자신과 친하다는 사실을 알
고 있으므로 다수결의 방법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
다.

서훈이는 겉으로는 공정하게 다수의 의견에 따르려는 것 같지만 결과에 대한
걱정으로 자신의 의견에 동의할 것을 은근히 재촉하는 듯하다. 서훈이의 의견에
다수가 동의했지만 찬호가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되면서 유아들은
결국 교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

이처럼 공정하게 겨루기는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무언의 약속이 들어있으나
유아들은 욕구가 클 경우,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다. 한 가지 특이
한 점은 공정하게 겨루기에 관련되어 관찰된 사례 모두 유아가 진 결과에 마지
못해서라도 승복하는 경우는 교사가 상황 속에 함께 있는 경우였고, 교사가 없

을 때에는 진 결과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욕구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이는 유아가 도덕발달상 자율성보다는 타율성이 강함을 나타내며, 욕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교사의 지속적인 도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Kamii(1980) 역시 유아들이 이미 너무 경쟁적이며 그로 인해 서로의 마음이 상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사들은 유아들이 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아들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므로 그들의 욕구가 클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에 쉽게 인정하지 못할 수 있으나 공정하게 겨뤄보는 경험은 유아들이 스스로 통제하고 정당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다른 경쟁거리 제시하기

이슬반 유아들은 경쟁상황에서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거나, 상대보다 우월하고 싶는데 동등한 위치에 놓인 상황이 되면 대결할 수 있는 다른 경쟁거리를 제시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제시된 경쟁거리의 내용은 현 상황에서 좀더 발전된 내용으로 진행될 수도 있거나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주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공통점은 모두 제시자의 입장에서 제시된 경쟁이므로 제시자에게 유리하고 상대방에게는 불리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다음 사례는 유아들이 경쟁상황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입장을 탈피하려고 서로에게 새로운 내용의 경쟁을 제시함으로써 대결하는 모습이다.

[지혜가 아윤과 역할영역에서 세빈이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세빈: 그건 진짜 논거지. 너는 안좋아했냐? @@와 나랑,,, 자기도 좋아했으면서..

지혜: 그러면 너가 우리 동생을 왜 좋아하는데? 너네 동생도 아니면서

세빈: 야, 그러면 너는 현도 아냐? 현도 아냐구? 현도 누군지 아냐?

지혜: 물론다. 어쩔래? 요한인 누군데 누군데?

세빈: ...

아윤: (지혜에게) 야, 그러면 임성빈, 전유빈, 수윤희는 누군데?

세빈: 맞아. 그리고 또 있다. 너 애네 집[아윤이네 집] 가본 적 있어?

지혜: 그러면 넌?

세빈: (아윤이에게) 너희 집 되게 좋지?

아윤: 어. 우리집 내 동생 기어다녀. 여기 이빨 2개나 뺏고...

지혜: 그래. 우리 동생 2살인데 이빨 8개 뺏어.

(관찰, 2003. 8. 27)

아윤이와 세빈이는 앞선 사례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인물에 대해 ‘누가 덜 좋아하고 더 좋아하고’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지혜를 상대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혜가 던진 말이 세빈이에게 불리해지자, 세빈이는 화제를 바꾸어 ‘현도를 아냐’며 대항한다. 이에 지혜는 모른다고 하지만 오히려 당당하게 전혀 기죽지 않고 세빈이가 모를 또다른 인물을 내세워 아느냐고 묻는다. 이를 알리가 없는 세빈이는 아무 말도 못하지만, 이 때 아윤이가 세빈이를 도와 또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겨룬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잠시 생각하던 세빈이는 ‘또 있다’며 아윤이네 집에 가본 경험의 유무를 묻는다.

세빈이의 ‘또 있다’라는 말은 이들이 무엇을 두고 어떻게 경쟁을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준다. 이들은 번갈아가며 대화하던 주제와 관계없이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상대가 불리해질 수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제시하는 것이다. 즉, 이들에겐 원래 그들이 화제로 삼았던 내용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례는 한참동안 이와 같은 경쟁적 대화로 더 진행되다가 서로 미안하다면서 화해를 하게 되는 결로 끝이 난다.

‘다른 경쟁거리 제시하기’ 전략을 사용함에 있어서 유아들은 상대방의 앎의 여부, 경험여부, 소유여부에 관한 내용들을 제시하며, 그 가운데서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앎의 문제에 관한 내용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전략은 주제가 계속 바뀌다보니 원래 유아들이 관심을 가졌던 주제로 돌아가지 못한 채 끝이 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걸으로 드러나는 경쟁내용을 가지고 겨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내재된 자존심 세우기와 같은 심리적 대결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3. 고집부리기

대결 전략에는 상대방이 포기할 때까지 무작정 맞서서 고집을 부리는 방법이 있다.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전략을 사용하며 자신이 목표를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직접적인 방법과 상대방이 포기하도록 방해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분된다.

다음은 상호간에 목표물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사례이다. 아래 상황은 오후에 실외놀이를 다녀와서 특별활동을 준비하는 전이시간에 일어난 일이다.

[유아들은 쌓기 영역에 모여 앉아 아이들이 모두 들어와 옷을 갈아입고 유리드믹스를 시작할 때까지 비디오를 시청한다. 보현이가 옷을 갈아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석준이에게 다가온다.]

보현: 야, 여기 이거 내가 의자 가지고 온건데.

석준: 아니야, 이거 내가 가져온거야.

[보현이와 석준이는 서로 자신의 의자라고 주장을 하며 맞서고 있다. 이윽고 보현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인다. 이 때 담임이 다가온다.]

조교사: (보현이에게) 너가 의자를 가져다 놓고 나간 사이에 친구들이 의자를 가져오다보면 자리가 옮겨질 수도 있거든. (교사가 앉았던 의자를 가리키며) 여기 앉도록 해.

[보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는다.]

(관찰, 2003. 8. 28)

특별활동을 지도하는 강사가 부를 때까지 유아들은 실외놀이터에서 수영하느라 입었던 수영복을 벗어놓고 비디오를 시청하며 잠시 기다리고 있다. 보현이는 비디오를 볼 자리에 미리 의자를 놓고 옷을 갈아입은 후 자리로 간다. 그러나 보현이가 옷을 갈아입을 동안 많은 아이들이 비디오를 시청하기 위해 의자를 가져와 자리를 정돈하며 앉았고, 석준이 역시 자신이 가져온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리를 정돈하느라 이동하면서 보훤이가 맡아놓았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미 보훤이의 의자에는 누군가가 앉아버렸는지 빈자리는 없다.

이러한 전후 상황을 모르는 보훤이와 석준이는 서로 자신의 의자를 되찾기 위해 경쟁을 벌인다. 양쪽 모두 결백하므로 팽팽하게 맞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서로가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므로 다른 해결방법을 찾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자신의 의자’라고 같은 말만 되풀이 한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자신들의 주장을 서로 고집하는 상황은 어느 한쪽이 지쳐 포기할 때까지 계속되고 쉽게 결말이 나지 않는다. 결국 교사가 와서 유아들을 이해시킴으로써 상황은 해결되었다.

말 대신 행동으로 자신의 의사를 고집하며 상대방과 대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

[준수와 다솔이가 책보기 영역에서 빙고놀이를 하려고 한다. 준수는 다솔이가 선택한 남자 돌리 그림이 그려진 빙고판을 하고 싶어 한다. 준수는 아예 빙고판을 바닥에 내려놓은 채 한참동안 아무 말도 않고 앉아 있다.]

신교사: (다가와서 준수에게) 빙고할거니? 근데 왜 바닥에 내려놓았어? 바닥에 내려놓으면 친구들이 너 안하는 줄 알잖아.

[준수는 훌쩍이며 눈물을 흘린다.]

신교사: 준수야, 아가가 된 것 같애. 이거 하고 싶었어?

[준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신교사: 준수야, 너가 이렇게 아가처럼 하면 친구들이 게임하고 싶을까?

신교사: 다솔이에게 ‘나 이거 하고 싶은데’라고 말해봤니? 안해봤지?

준수:.....

신교사: 대답 좀 해봐. 준수야.

준수:....

신교사: 재미있게 게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때 다솔이가 빙고판을 놓고 간다.]

신교사: 그래서,, 이제 이거 갖게 되어 좋니? 친구는 가버렸는데..

[준수는 계속 눈물 흘리며 가만히 있다.]

신교사: 울고 고집부리고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어.

(관찰, 2003. 8. 6)

위의 상황은 함께 게임을 하려던 준수와 다솔이 사이에 맘에 드는 게임판을 놓고 서로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다솔이가 먼저 남자 돌리 그림이 그려진 빙고판을 선택하자 준수는 갑자기 굳어진 표정으로 남은 빙고판을 바닥에 버려둔 채 다솔이가 가지고 있는 게임판을 바라본다. 이러한 준수의 행동에 다솔이도 눈치를 채지만 다솔이 역시 남자 돌리 그림을 좋아하므로 양보할 수 없다는 듯 게임판을 손에 꼭 쥐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은 게임을 하느냐, 못하느냐 보다는 그 게임판을 누가 갖게 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된다.

한편 교사는 멀리서 이 상황을 보고 있다가 준수에게 다가와 말로 하지 않고 울고 고집부리는 행동은 아기 같은 철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이끈다. 또한 이를 보고 있던 다솔이가 게임 자체를 포기하고 나가자 교사는 친구를 잃고 게임판을 얻은 것을 대비시킴으로써 친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경쟁상황은 이렇게 자신의 욕구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다가 친구관계에 손상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교사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를 분명하게 전달할 것을 지도하고 있다. 고집을 부리는 행동은 상대방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상대방이 지쳐서 포기하도록 기다림으로써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Eisenberg & Garvey(1981)는 3.5세에서 5세 사이의 유아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고집부리기 전략은 갈등을 지속시킬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나이가 어릴수록 자신의 요구만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집부리기는 일방적인 것으로 상대방의 진로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행해지며 제 3자의 도움이 없는 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결과를 갖기 어려운 전략으로 볼 수 있다.

4. 민첩하게 움직이기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먼저 행동해야 한다는 인식이 이슬반 유아들 사이에서 행동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이슬반 유아들이 이슬반에 있는 놀이감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친구가 먼저 놀이감을 가지고 놀고 있을 때, 그 놀이감을 사용하려 하는 행동은 상대방을 방해하는 행동이나 빼앗는 행동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즉 사용권이 있어도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유아들은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물질 자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원, 정보적 자원으로 확대되어 적용된다. 때문에 유아들은 경쟁에 있어서 우선권을 획득하기 위해 민첩하게 행동하며, 우선권 획득은 목표물 획득과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되므로 민첩한 행동 자체가 경쟁상대와의 대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슬반 유아들은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개별간식을 하므로 간식영역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한번에 6명까지 먹을 수 있도록 의자가 놓여있다. 또한 쌓기영역과 같은 활동적인 영역은 간식을 먹은 유아들이 놀이를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사례는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두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장면이다.

[교사가 간식영역에 간식을 준비해 놓는다.]

세빈: (제일 먼저 이름표 붙이고 앉으며 큰 소리로) 간식이 왔습니다.

[함께 놀이하던 영균, 서훈, 지선은 벌떡 일어나서 간식영역으로 달려가 다른 아이들이 먼저 붙일세라 빠른 동작으로 이름표를 붙인다.]

(관찰, 2003. 9. 18)

이슬반에서 교사가 간식을 가져오면 유아들은 간식영역에 들어가기 위해 남들보다 빠른 동작으로 줄을 서거나 이름표를 붙이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우선권은 키나 능력 혹은 외모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도착한 유아가 가지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남들보다 민첩하지 않은 행동은 간식을 못 먹

게 되는 일이나 하고 싶은 쌓기놀이도 시작할 수 없게 되는 일 등의 목적 달성의 실패와 직결된다. ‘먼저 맡은 사람이 임자’라는 말처럼 유아들의 민첩한 움직임은 우선권이 필요한 한정된 상황과 우선권 획득의 기준이 속도라는 환경적 영향에서 비롯된 전략이라 볼 수 있겠다.

B. 협박적 언행

협박은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일로, 이슬반에서 유아들의 협박적 언행은 상대방 약점 찌르기, 말로 협박하기로 주로 언어적인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전략을 통해 경쟁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이끌고 있었다.

1. 상대방 약점 찌르기

이슬반 유아들은 경쟁상황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함으로써 상대의 세력을 약화시키거나 패배하도록 만들었다. 유아들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은 상대방의 현재 혹은 과거의 반칙, 실수, 잘못, 무능력 등이었으며 이 외에도 상황의 불공평함이나 도덕·윤리적인 면이 포함되었다. 다음은 유아들이 활동실에 모여 팀별로 하는 단체 게임 시 승부를 위해 상대방의 반칙을 공격하는 사례이다.

[석준이는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규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유심히 살핀다.
서훈이는 남들이 응원을 안 해도 혼자 큰 소리로 박수치며 응원한다.]

[지연과 찬호가 경기를 한다.]

정민: (상대편 지연이 먼저 돌아오자) 선생님, 지연이 과자 안 먹고 왔어요.

지연: 먹었어.

정민: 아,,, 해봐.

담임: (정민에게) 왜 친구를 안 믿니?

[아윤이와 지섭이가 경기를 한다.]

[아운(치카치카 팀)와 지섭(과자 팀)이 경기를 마치고 돌아온다.]

서훈: (과자팀)규칙! [반칙이라는 뜻으로 말함] 아운인 칫솔질 1번 했어요.

찬호: (과자팀) 3번 했어.

혜진: (과자팀)과자를 손으로 잡았어요.

석준: (치카치카팀)아냐, 실 잡았어.

정민: 선생님, 완전 싸움해요. 여기 싸움장 같아요.

(관찰, 2003. 8. 12)

릴레이 경기가 아니므로 아이들은 한명씩 대표로 나가 게임할 때마다 상대방의 규칙준수 여부를 자세히 확인한다. 게임에서 빨리 들어온다고 해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감점을 당하거나 상대방이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아들은 규칙준수가 승리하는데 중요한 관건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때문에 서로 자신의 편을 위해 응원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반칙 사례를 고발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상대팀의 반칙을 고발하는 것은 자기팀의 승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상대방이 규칙을 지켰더라도 자신이 보기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의심을 하고, 확인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 즉, 반칙을 했음에도 승리를 위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팀원들도 같은 편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최기영(2001)은 집단게임에서 나타나는 유아들의 경쟁성에 관한 연구에서 유아들은 자신이나 친구들이 이기기 위해서 반칙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의 반칙여부를 열심히 확인하였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상황은 유아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의도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보여진다. 결국 이러한 의심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점점 소란스러워지자 정민이는 싸움장 같다고 표현함으로써 공격을 주고받는 상황임을 드러낸다.

다음은 유아들 사이에서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상황이다.

[형진이와 대근이는 언어영역에서 책을 보고 있다.]

(중략)

형진: (다른 책을 가져오며) 아, 이거 짱 재미있어.

[대근이가 책을 만지자.]

형진: 봐...(대근이가 책을 놓자) 너 이름표 어딴어?

대근: 이름표? 수·조작놀이.

형진: 그런데 왜 책보기에 와있어?

대근: 괜찮아, 책보기하고 좀 있다가 하면 돼. 끝나고..

[형진과 대근은 다시 책을 함께 본다.]

대근: (책을 다 본 후 다른 책을 집으며) 아, 나 공룡책 봐야지.

[형진이는 대근이가 집은 책을 빼앗는다.]

대근: 야, 내가 먼저 했잖아.

형진: 넌 이름표 붙이고 와라.

대근: 이거 너꺼냐?

형진: 니꺼냐?

대근: (이름표를 붙이고 오면서) 너꺼도 아니면서..

형진: 그럼, 이대근 이거 누구 건지 아냐?

대근: 누구건데? 모르면서..

형진: 예. 나 알아. 이민영. 아,,, 그것도 몰라. 자 봐봐(책에 적혀있는 이름을 보여준다)

(관찰, 2003. 8. 22)

대근이는 수·조작 영역에 이름표를 두고 언어영역에 와서 형진이와 책을 보고 있다. 함께 책을 본 후 대근이가 다른 책을 보기 위해 공룡책을 짚자 형진이는 자신도 그 책을 보고 싶었으므로 대근이로부터 빼앗는다. 대근이가 먼저 책을 맡았다며 우선권을 주장하지만 형진이는 대근이가 이름표가 없다는 약점을 공격하며 책을 볼 권한이 없음을 나타낸다. 책을 먼저 맡은 것보다 책을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우선적 권리라는 것을 판단한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대근이는 형진이도 또한 책에 대한 소유권을 결정할 권리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 책 주인을 따지기 시작한다. 즉, 이들은 공격당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기 약점보다 더 크거나 그에 버금가는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전략이라도 상황에 대한 유아들의 판단에 따라 내용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약점공격은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약화시키거나 제거함으로써 자신이 목표물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 같은 효과가 있으나,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위축감, 불안감, 보복심, 자존심 손상 등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이 전략은 상대방에게 약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유아들의 조망수용능력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유아들은 자기중심적이어서 타인의 입장, 관점 또는 견해 등을 취하지 못한다고 한 Piaget(1962)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유아의 조망수용능력을 인정하는 Selman(1990)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2. 말로 협박하기

유아들의 말로 협박하기는 경쟁상대가 두려워하는 제 3자를 끌어들이거나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제거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 전략은 자신이 실행할지도 모르는 행동을 조건부로 제시하면서 상대방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만, 위협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반강제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말로 협박하기는 언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언성에 변화를 주는 것과 같은 준언어적인 면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협박당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특히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힘을 주어 말하는 경우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게 되므로 자신에게 좀더 유리한 상황을 이끌 수 있다(관찰, 2003. 8. 12).

다음은 경쟁상황에서 제 3자를 끌어들이겠다고 위협하는 장면이다. 과학영역에서 채집통에 든 방아깨비를 유아들이 관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준이와 정민이가 각각 자신의 위치에서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채집통을 경쟁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함께 보던 채린이가 이를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다. 같은 행동을 되풀이 하던 이들은 결말이 보이지 않자 석준이가 '선생님'하고 외친다. 교사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부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석준이가 정말로 교사를 부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정민, 채린, 석준이는 방아깨비를 보고 있다.]

(중략)

[정민이가 채집통을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긴다.]

석준: 야, 니가 잡아온 것도 아니잖아.

[정민과 석준은 계속해서 채집통을 자신의 쪽으로 놓느라 티격태격이다.]

채린: (보고 있다가) 애들아, 같이 봐. 그러면

석준: (이를 것처럼) 선생님

정민: 왜 너만 갖고 가냐

석준: 좀 보고 너도 보이잖아. 여기

정민: (자신 쪽으로 당기며) 여기 가까이서 보자.

(관찰, 2003. 8. 14)

유아들에게 있어서 교사는 결정권을 쥐고 있는 우세한 위치에 있는 존재이므로 때에 따라선 유아에게 위협적인 존재일 수 있다. 석준이는 정민이가 먼저 채집통을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교사도 자신의 편이 되어줄 거라는 믿음에서 당당하게 교사를 두고 상대를 위협하는 것이다. 즉 정민이에게 교사가 위협적일 수 있으므로 교사를 거론하면 정민이가 양보할거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한편 정민이는 석준이의 의도대로 약간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며 ‘왜 너만 갖고 가냐’라며 은근히 석준이의 잘못을 다시 한번 추궁하고 곧 분위기는 진전된다. 이와 같이 위협적인 존재를 등장시키는 방법은 전략을 사용한 유아의 세력을 키우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협박을 받은 유아는 대부분 태도를 완화시키게 된다.

한편 유아들은 이 외에도 상대방의 욕구를 제거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병찬이와 지섭이는 같은 블록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만들기를 하고 있다.

병찬이는 지섭이가 막 집은 블록을 자신도 필요했기에 찾아보지만 없다.]

병찬: (지섭이의 블록을 집으며) 나,, 이거 필요해.
 지섭: (블록을 뺏으려 힘을 주며) 아,,,
 [병찬이와 지섭이는 잠시 서로 블록을 잡고 있다가 병찬이가 내려 놓는다.]
 병찬: 나 너 공룡 안그려줘.
 [잠시 후...]
 지섭: (병찬이에게) 나 이거 초록색 2개 줘.
 병찬: 그래. (내어주며) 대신 하얀색 줘. 나 하얀색 많이 필요해.
 [지섭은 자신의 구성물에서 흰색 블록을 하나 떼어 준다.]

(관찰, 2003. 8. 21)

병찬이와 지섭이가 서로 자신이 필요한 블록을 차지하기 위해 겨루는 상황에서 병찬이는 지섭이가 먼저 차지한 블록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힌다. 그러나 지섭이는 병찬이가 행동으로는 이미 자신의 블록을 꼭 쥐고 있으므로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같이 힘을 주며 블록을 잡아당긴다. 한편 병찬이는 말로 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에, 자신이 목표물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힘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지섭이의 블록을 두고 뺏으려 한다. 그러나 팽팽한 긴장감 속에 힘으로도 승부가 나질 않자 병찬이는 블록을 놓고 ‘공룡을 안그려준다’며 협박조의 말을 내던진다.

병찬이는 평소에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고, 공룡그림을 잘 그려서 아이들이 그에게 공룡그림을 부탁하곤 한다(교사면담, 2003. 9. 29). 그런데 지섭이도 평소에 공룡그림을 그려달라며 많은 관심을 보였으므로 병찬이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협박을 한 것이다. 즉, 그림을 안그려준다고 하면 지섭이가 블록을 양보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러나 지섭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블록을 그냥 가져가 버린다. 이것은 지섭이가 블록에 대해 가지는 욕구가 병찬이가 내세운 조건에 대한 욕구보다 더 강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눈앞에 두고 있는 욕구에 더 집중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 때문에 경쟁상황에서 상대방의 욕구를 제거하겠다는 협박은 대부분 의도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채 끝나게 된다.

C. 과장된 언행

과장된 언행은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리는 것으로 행동적인 면과 언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유아들은 행동적 측면보다 주로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과장하기가 많이 나타났으며, 관찰된 과장행동도 단독적 기능보다는 언어적인 과장을 좀더 효과적이도록 돕는 보조역할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과장하기는 경쟁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물질자원이 아닌 우월, 인정의 욕구와 같은 사회·심리적인 자원일 경우 이를 나타내기 위한 간접적인 표현방식으로 사용되었다.

다음 사례는 소유량을 서로 견주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장된 언행에 관한 것으로 수·조작 영역에서 놀고 있던 상진이와 서훈이에게 석준이가 다가와 대뜸 자동차 소유여부를 확인하면서 대화가 시작되었다.

석준: 야, 너 (장난감) 차있냐. 타는 차?

상진: 나 있어.

서훈: 나도 있어. 너 몇 개 있어?

석준: 40개

상진: 나 50개, 아니 나 70개

서훈: 80개

세 명이 동시에: 난 만개

석준: 난 해경만개. 해경만개가 더 많다.

(관찰, 2003. 7. 21)

유아들이 모여서 소유하고 있는 장난감 자동차의 개수를 서로 경쟁적으로 비교하는 상황이다. 유아들은 개수를 말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제시한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로 계속 바꾸어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실제로 가지고 있는 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보다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부풀려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유아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므로 실제로 상대방이 가진 개수에는 애초부터 관심을 두지 않는다. 대신에 타인에게 자신이 결코 뒤떨

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두고 과장된 언행을 선택한다. 이러한 과장된 언행은 상대방에게도 똑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어느 한쪽이 그 한계선을 제시하면서 끝이 난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목표달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한다. 유아들은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많이 알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과장하기를 하는데 다음과 같다.

[실외 놀이터에 있는 잔디밭에서 곤충을 잡으며 신나게 뛰어놀던 남아들이 나무그늘에 모여 TV프로그램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포켓몬’의 방영시간 대 등 여러 정보들을 각자 자신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듯 얘기한다.]

(생략)

민재: 나 그거 봤어. 종일방송.

현성: 그거 망고 나온다. 어떤 시간이면.. 만약에 지금이 9시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포켓몬..

상진: (현성이 말하는 도중) 망고 안나와.

민재: 난 4번 봤어.

상진: 난 맨날 봐. 10번 넘게 봐.

현성: (유아들이 자신의 말을 잘 안듣고 얘기하자 거듭 큰 목소리로) 그러면,,, 야, 그러면 지금이 4시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4시에 텅고와 올라 송 한다고 하면 지금 하는 거야. 지금 방송되는 거야.

(이하 생략)

(관찰, 2003. 9. 26)

남아들이 실외놀이터의 잔디밭에 모여 그들이 관심있는 TV 프로그램에 관해서 서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앞다투어 이야기하고 있다. 현성이가 말하던 중 민재는 상진이와 따로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르자 이에 대한 근거로 자신이 그 프로그램을 더 많이 봤다는 걸 견주기 시작한다. 특히 상진이는 자신이 매일 10번 넘게 본다며 부풀려 제시하는데 이러한 과장은 실제로 본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많이 보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상대방보다 더 많이 보았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더 많이 그리고 더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이는 나

아가서 조금 전 서로 간에 의견 차이를 보인 정보에 있어서 자신의 정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과장하기는 상대보다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한 간접적인 표현방식이므로 유아들 역시 사실을 부풀린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 나쁜 거짓말로 여기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함께 맞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이미 서로 과장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쪽이 특별히 다른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한 대부분 호지부지한 결말을 보이게 된다.

D. 물리적 힘 행사

이슬반 유아들은 경쟁상황에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다른 유아의 신체나 놀이감과 같은 사물을 공격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유아의 신체에 대해 힘을 가하는 경우는 경쟁자의 목표추구 행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으로 밀치기, 막기, 때리기 등으로 나타났으며 사물에 대한 힘 행사는 경쟁의 목표물을 빼앗는 행위로 나타났다.

다음은 경쟁상황에서 상대방의 놀이감을 빼앗는 사례이다. 상진이가 구슬 맞추기 놀이를 하려고 놀이감을 꺼내는 상황에서 수·조작 영역에 도착한 준수는 자신도 그 놀이감을 하고 싶었는지 상진이에게로 다가간다. 구슬 맞추기 게임은 상대와 겨루는 것이 아니므로 유아들은 혼자 활동하기를 선호한다. 때문에 준수와 상진이도 그 놀이감을 혼자 맡아 하려고 하는 상황인 것이다.

[상진은 구슬 맞추기 놀이를 하려는데 거의 동시에 도착한 준수가 다가와 구슬 몇 개를 빼어 주지 않는다.]

상진: (관찰자에게) 선생님, 애가 안줘요.

관찰자: 준수야, 상진이가 먼저 와서 하려하는데 빼앗으면 놀이를 할 수가 없잖니.?

[준수는 고개를 저으며 한사코 내어주지 않는다. 상진은 구슬이 없는 대로 끼워 맞추다가 자리를 뜬다.]

(관찰, 2003. 8. 13)

상진이가 놀이감을 먼저 맡았으므로 준수가 그 놀이감을 차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때문에 준수는 상진이의 게임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아예 구슬 몇 개를 빼앗는다. 즉, 상대방이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차지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준수의 예상대로 놀이를 하던 상진이는 구슬이 부족하자 놀이에 재미를 못 느끼게 되고 관찰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에 관찰자는 준수에게 놀이에 대한 권한이 상진이에게 있음을 알리지만 준수는 이를 듣지 않고 계속 구슬을 내놓지 않는다. 준수는 상진이의 우선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권한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즉, 목표가 되는 사물이 자신의 수중에 들어오기만 하면 자기가 그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상진이가 놀이를 포기하고 떠나는 것으로 상황은 종료된다. 이처럼 목표물의 일부를 먼저 빼앗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목표물 전체를 힘으로 빼앗아 버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더욱 강한 반발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관찰, 2003. 8. 6).

한편 목표물이 아니라 목표물을 두고 겨루는 상대방에게 직접 힘을 가함으로써 경쟁을 하는 경우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슬반에서는 하루 일과를 마칠 무렵 유아들은 하루를 보내면서 즐거웠던 일 등을 나타내보는 회상하기 시간을 갖는데 회상하기는 자신의 활동 계획표에 그려진 빈칸에 그림이나 글자로 표시한 후 교사에게 도장을 받는 것으로 진행된다. 아래의 상황은 활동계획표가 꽂혀있는 바구니에서 유아들이 서로 자신의 것을 먼저 꺼내려고 경쟁하는 모습이다. 유아들은 줄을 서지 않고 자신의 순서를 차지하려다보니 상대 유아를 힘으로 밀거나 앞으로 가는 것을 막으면서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였다.

[유아들은 바구니에서 서로 자신의 활동 계획표를 먼저 꺼내려고 상대방을 밀치며, 바구니를 빼앗는다.]

[이들은 줄을 서지 않고 서로 먼저 하려고 모여든다.]

(관찰, 2003. 9. 22)

다른 유아가 먼저 활동표를 꺼내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신의 순서가 점점 늦어 지므로 경쟁자에게 직접 힘을 가하여 진로를 방해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 상황은 경쟁자가 다수이므로 유아들은 경쟁자에게 힘을 가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아예 바꾸니를 통째로 빼앗아 자신의 계획표를 꺼낸 후 놓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자신의 순서를 차지하기 위해 상대방을 때리는 경우도 볼 수 있었는데(관찰, 2003. 8. 28) 이처럼 유아들은 자신의 흥미 추구를 위해 공격적인 전략을 주로 사용하며(송혜영, 최보가, 2002) 이는 사회적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이 물리적인 힘을 이용한 전략은 경쟁자의 행위를 방해함으로써 자신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으로, 이 때 경쟁자가 자신보다 힘이 세거나 교사와 같이 권력을 가진 제 3자의 도움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략 사용자가 승리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물리적인 힘의 사용은 사용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지 모르지만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므로 교사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한 전략이라 하겠다.

E. 설득

설득은 유아들이 상대방을 이해시킨다는 나름대로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이다. 이슬반 유아들은 권한을 주장하거나 협상하기를 통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1. 권한 주장하기

유아들은 경쟁적 상황에서 자신이 목표를 획득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이 포기하도록 만들거나 자신을 좀더 유리한 입장으로 이끌었다. 유아들에게 권한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우선권이나 자신의 공로 등으로,

이는 상대방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평소 이슬반에서 통용되던 것이다. 이러한 권한은 물질뿐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었다. 다음 사례는 좋아하는 친구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한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조형영역에서 관찰되었다.

[민영은 도경의 뺨에 장난삼아 뽐뽐한다. 도경은 웃는다.]

민영: 아, 친구한테 뽐뽐할 때 내일로 해야겠다. 치마입고 와서.

도경: 나두, 난 상진이, 난 모상진한테 뽐뽐해야지.

민영: 나두

도경: 야, 넌 진수한테 뽐뽐한다매.

민영: 뭐라구?

도경: 너 진수한테 뽐뽐한다매.

민영: 싫어.

도경: 내가 먼저 상진이 좋아했어.

민영:

[도경과 민영은 곧 색칠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

(관찰, 2003. 9. 22)

민영과 도경이는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 반에 있는 남자 유아들에게로 초점이 모아진다. 도경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상진에게 뽐뽐를 해주겠다고 하자, 민영도 덩달아 상진에게 뽐뽐하겠다고 한다. 이에 도경이는 민영이 상진에게 뽐뽐를 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먼저 좋아했음에 대한 권한을 내세운다. 이슬반에서는 목적이 되는 대상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우선권이 통용되곤 하는데 도경이는 이를 인간관계에서의 애정에도 그대로 적용시키고 자신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민영은 도경이의 논리에 수긍이 가는지 아무런 말이 없고, 잠시 후 다른 대화로 넘어가게 된다.

이밖에도 자신이 세운 공로를 내세워 자신이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사례도 볼 수 있었는데(관찰, 2003. 7. 23), 이렇게 유아들 사이에서 자신의 권한을 주장하는 것은 나름대로 공정하고, 타당하며 논리적인 이유가 되어 상대방을 설득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고 있다.

2. 협상하기

‘권한 주장하기’가 자신에게 초점이 모아진 설득전략이라면 협상하기는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어 설득하는 전략이라고 하겠다. 유아들은 상대와의 경쟁에서 자신이 불리해지거나 이미 타인에게 목적물이 넘어간 경우 협상하기를 통해 상대방이 목표물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였다.

세빈: 나 간호사 해야지.

아윤: 나도 간호사.

[세빈이는 가운을 입지만 아윤이는 가운이 없다.]

아윤: (신고 있던 구두를 가리키며) 세빈아, 내가 구두 줄게. 그거[가운] 줘라.

[세빈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관찰, 2003. 8. 22)

세빈이와 아윤이가 역할놀이에서 간호사를 맡기로 하고 서로 가운을 입으려 하지만 세빈이가 먼저 차지하게 된다. 아윤이는 놓쳐버린 소유권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이 신고 있던 구두를 통해 협상을 제의한다. 그러나 구두는 세빈이에게도 가운보다 더 큰 만족을 줄 수 없으므로 아윤이의 전략은 실패로 끝나 버린다.

또한 협상하기는 상호간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기로 약속하고 함께 목적을 이루는 형태로도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형진이와 대근이가 언어영역에서 서로 수수께끼를 내는 역할을 맡고자 겨루는 상황이다.

[대근이가 먼저 수수께끼 책을 맡은 상황에서 형진이가 이를 낚아채며 자신이 수수께끼를 내겠다고 한다. 서로의 주장으로 해결이 쉽지 않자 서로 번갈아가면서 한 개씩 내기로 한다.]

형진: (수수께끼)한 개만 낼게.

대근: 한 개만 내.

형진: 응. 그래. 그 다음에 니도 한 개만 내.

대근: 에..

형진: 왜? 니도 한 개만 내.

[번갈아가며 수수께끼를 내다가 곧 형진이는 요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뜬다.]

(관찰, 2003. 8. 22)

서로 수수께끼를 내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해결이 잘 나지 않자 형진이는 한 개씩 번갈아가며 내자는 제안을 하고 이에 대근이도 찬성하게 된다. 양자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계속 겨룬다면 시간만 흐르고, 목표물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상호간에 조금씩 양보할 것을 협상함으로써 원하는 목표를 모두가 이룰 수 있는 협력적인 결과로 이끌어낸 것이다.

이처럼 협상전략은 상호간의 목적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제안을 하거나 목표물 보다 상대에게 더 만족을 줄 수 있는 협상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므로 유아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생각, 선호도 등을 잘 고려해서 사용해야 하며 조망수용능력이 미숙할수록 결과가 좋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하겠다.

F. 속임수 사용

이슬반에서는 경쟁상황에서 승부를 위해 혹은 목표물을 차지하기 위해 상대방을 속이고 행동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경쟁상대가 자신과 겨루고 있는 내용에 대해 미숙하다거나, 상대방이 잠시 다른 곳에 신경쓰고 있는 상황 등 자신의 행동을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할 틈을 찾아 전략을 실행하고 있었다. 다음은 유아들이 순서를 정하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속임수를 쓰는 경우이다.

[상진이와 세빈이가 수·조작영역에서 고누놀이를 하려 한다. 진수가 다가와 구경한다.]

상진: 가위바위보 하나빠기로 하자.

[세빈이와 상진은 하나빠기로 승부가 안나 여러 번 한다. 그러다가 상진이

의 양손 모두 가위가 나오고 세빈이의 양손 모두 주먹이 나온다. 그러나 하나빼기를 외치며 상진이의 손은 ‘보’로 바뀌어 나온다. 세빈이와 지켜보던 진수는 기억을 못했는지 상진이가 이긴 걸로 아무런 이견없이 결정된다.]

(관찰, 2003. 8. 14)

상진이와 세빈이는 놀이할 순서를 정하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하기로 한다. 상진이는 평소에 친구들과 그냥 가위바위보 보다는 변형된 형태인 하나빼기나 요술빼기-하나빼기의 상황에서 한 손을 내미는 순간에 손모양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자주 하곤 하여 자신있는 상태이므로 세빈이에게도 하나빼기를 하자고 제안하고 세빈이는 이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세빈이의 양손이 모두 주먹, 상진이의 양손이 모두 가위가 나와서 ‘하나빼기’를 외치며 손을 내미는 순간 세빈이가 이기게 될 상황이 된다. 그렇지만 결과는 손모양을 몰래 바꾸어 낸 상진이가 이기게 된다.

세빈이를 비롯하여 이슬반 여아들은 겨루는 상황에서 주로 그냥 가위바위보를 하는 편이므로 하나빼기와 같은 변형된 형태는 자신 없어하였다(관찰, 2003. 8. 18). 상진이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으므로 하나빼기를 제안한 것인데, 막상 세빈이가 이기게 되는 상황이 되자 세빈이가 미숙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슬쩍 손모양을 바꿈으로써 속인 것이다. 하나빼기와 같이 양손을 사용하여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은 상대방의 손까지 네 개의 손을 고려해야 하므로 유아들에게는 혼동되고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세빈이는 상진이가 자신의 눈앞에서 손을 바꾸었는데도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결과에 그냥 수긍한다. 또한 상진이는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속인 것이므로 가볍게 자신의 목표를 이룬다.

이처럼 상대방의 미숙한 점을 이용하여 속이는 행위는 승부를 가리는 개별 관계임에서도 관찰되었는데(관찰, 2003. 9. 22) 관계임에서는 게임의 기회가 계속 있으므로 속임수가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길 때까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경쟁은 상호 배타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경쟁자는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유아는 발달특성상 타율적인 도덕성이 강하므로 자신의 욕구대로 행동하는 일이 많은데, 이런

경험은 반복될수록 유아에게 속임수와 같은 부정행위가 나쁜 것이라는 사실에도 무감각해지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속임수가 가져오는 승리의 결과는 유아에게 그러한 행동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속임수 전략은 자신처럼 상대방도 나를 속일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하며 상대방에 대해 불신감을 갖도록 하는 등 관계에 문제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

G. 협력

Charlesworth(1988)는 협력이 개인이 자원을 획득하는 전략의 하나로서 효과적이고 사회문화적으로 적응력이 있는 경쟁의 한 형태라고 하였다. 이슬반 유아들의 협력전략은 경쟁상황에서 서로 간에 힘을 모아 목표물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경쟁상대와 협력하는 경우와 같은 편과 협력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쟁상대와의 협력은 교사의 유도에 따라 일어나기도 하였고 유아들 스스로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후자의 경우 자신이 불리한 입장에 있을 때나 경쟁의 결과보다 협력에 의한 결과가 더 만족을 준다고 판단될 때 제안되었다. 또한 같은 편과의 협력하는 경우엔 협력이 필요한 경쟁구조에 의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다음은 유아들간 요구가 다른 상황에서 교사의 유도에 의해 경쟁상대와 협력하는 장면이다.

[쌓기 영역에 모여있는 유아들 중 아윤, 소윤, 지선은 장기자랑, 석준이와 민재, 서훈은 자동차 놀이를 하고 싶어한다.]

[이 때 신교사가 다가오고 아이들은 도움을 청한다.]

(중략)

지선: 가위바위보로 정해요.

신교사: 가위바위보로 정해? 그러다 지면 속상할 것 같아. 만일 자동차 경주가 지면 소꿉놀이에서 해?

서훈: 손을 들어서 정해요.

지선: 장기자랑을 구경하는 차가 오는 걸로 해요.

신교사: 너희는 어때?

석준: 그러면 차들은 조금 해야 하잖아요.

신교사: 글썸.. 장기자랑은 너희가 직접 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선: 그러면 인형을 세워서요. 노래 부르는 척 하면 되잖아요.

신교사: 아, 장기자랑 열리는 곳, 무대를 조그맣게 만들고 오는 차길을 만들자는 얘기야? 그러면 같이 놀이 할 수 있겠다. 그럼, 자동차 경주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구 길을 만들어 자동차 타고 장기자랑 구경하러 가는 거지. 그럼 자동차도 가지고 놀 수 있고 장기자랑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무대를 예전처럼 크게 만들면 둘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애.

서훈: 길부터 만들자.

[유아들은 합의를 보고 만들기 시작한다.]

(관찰, 2003. 8. 25)

쌓기영역에서 하고 싶은 놀이가 서로 다르므로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편을 나누어 경쟁하는 가운데 해결이 안나자 유아들은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지선은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한다. 이에 교사는 지는 팀은 못하게 되므로 매우 속상할거라며 질 경우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흔히 대결을 앞둔 상황에서는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만 초점을 두어 경쟁심만 확대시키므로 교사는 유아들에게 자신들이 질지도 모르는 상황을 부각시킴으로써 협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지는 팀은 속상할거라는 언급은 유아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기능을 하게 되므로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교사의 의도대로 지선은 두 가지 놀이를 다 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석준이는 협력을 하게 될 시 놀이의 비중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타협점을 만든다. 함께 놀이할 경우,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하지만 장기자랑 특성 상 자칫 상대편의 놀이보다 자신의 자동차 놀이가 너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 것이다. 이에 지선은 장기자랑을 직접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형을 세움으로써 축소할 것임을 제시하고 이에 유아들은 협력을 하게 된다.

이처럼 협력은 개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행동을 조합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상호간 목적을 함

게 이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Nelson & Madsen, 1969). 그리고 유아들의 상호 관계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전략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사는 경쟁상황에서 정당하게 겨룰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다. 협력을 경험한 유아들은 협력을 스스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유아들 스스로에 의한 협력이 일어난 상황으로써 쌓기영역에서 관찰되었다.

[세빈, 주호, 도경은 쌓기 영역의 한 구석에서 따로 인형소품을 가지고 놀이를 한다.]

주호: (나무막대블록으로 구성하다가 모자라자 도경이를 보며) 2개만 더 줘. 여기 모자라.

도경: (자신이 만들던 것을 보며) 안되는데...

주호: 니가 나보다 더 많잖아.

도경: (잠시 생각하더니) 야, 그럼 우리 합체하자.

주호: 합체?

도경: 그래.

재현: (옆에 오더니) 야, 왜 토끼와 오리가 함께 사니?

주호: 아니, 합체한거야.

(관찰, 2003. 7. 25)

주호와 도경이는 쌓기 영역에 나란히 앉아 필요한 블록을 각자 따로 확보해놓고 구성물을 만들었다. 잠시 후 주호는 도경이가 가지고 있는 블록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고 목표물을 획득하기 위해 도경이에게 부탁한다. 이에 도경이가 거절하자 주호는 포기하지 않고 도경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나무라듯 얘기한다. 이슬반 유아들의 경우, 놀이감을 혼자만 많이 독차지하고 쓰는 것은 욕심부리는 행위이며, 나누어 써야 한다는 것을 교사로부터 지도받은 터라 종종 한쪽이 많을 경우 그것이 이유가 되어 양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관찰, 2003. 9. 25). 주호 역시 목표물 차지라는 경쟁상황에서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도경이를 설득시키려 하는 것이다.

도경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합체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주호의 발언으로 인해 도경이가 목적물을 포기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으로 이끌었고, 이에 대해 도경이는 목적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호는 도경이의 뜻밖의 제안에 놀라는 것 같더니 곧 이를 수용하고 둘은 협력한다. 이렇게 협력은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인 유아에 의해 제안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목표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유아들은 경쟁상황에서 경쟁보다 협력에 의한 결과가 더 만족을 준다는 판단이 들 때 스스로 협력을 하게 되며(관찰, 2003, 7. 18) 단체게임처럼 자신의 팀원들과 협력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쟁구조 하에 자연스럽게 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관찰, 2003. 8. 27). 즉,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한 유아들에게는 이타적인 협력보다는 협력을 함으로써 더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거나 자신의 목표물을 포기하는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의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기존의 실증적 연구들에 의하면 집단보상 조건 하에서는 협력 행동이 증가 하지만, 개인에게 혜택이 없는 조건에서는 협력행동이 급격히 감소하였다고 하여(Madsen & Shapira, 1970; Nelson & Madsen, 1969) 협력이 개인의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이기적 추구의 한 행위임을 시사하기도 한다(김판희, 1996).

협력은 승자와 패자를 가림으로써 관계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 패자의 경우 자아개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쟁의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협력의 경험은 유아들의 이타적 행동의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슬반 유아들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대결, 협박적 언행, 과장된 언행, 물리적 힘 행사, 설득, 속임수 사용, 협력 전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유아들은 경쟁상황에서 한 가지 전략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사용하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상황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전략을 실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략 중에는 상대와 공정하게 대결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상대방을 납득시키는 방법, 그리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협력하는 방법 등 보다 효율적이고 상호긍정적인 경쟁태도 함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었으나 또래관계에 손상을 가져오거나 도덕적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도 상당히 있었으므로 유아들이 적절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와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I. 논의 및 결론

A. 논의

본 연구는 만 5세반 유아들의 또래간에 발생하는 경쟁의 양상과 전략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이라는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이슬반 유아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경쟁을 하는지, 경쟁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된 결과들을 연구문제별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아결 어린이집 이슬반에서 또래 경쟁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슬반 유아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삶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가운데 자신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또래들과 능력, 소유권, 경험, 소유량, 재미·흥미 추구, 애정, 참여기회, 인기있는 역할, 인정의 내용으로 경쟁이 일어났다.

첫째, 또래간의 경쟁은 능력을 두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유아들은 능력수준, 능력소유 여부, 능력 우선권에 관한 비교를 통하여 상호간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승부 가리기나 활동 결과물 비교, 상대방의 자량에 대한 맞대응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다. 능력 경쟁을 통하여 우위를 확보한 유아는 승리에 대한 자신감, 상대적 우월감, 자기 효능감 등을 가질 수 있었으나 반대의 경우엔 상대적 열등감, 불안감, 자존심 손상 등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경험이 반복될수록 이후 또래관계에 있어서 능력의 차별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최기영(2002)은 승부에 대한 집착은 단순히 승패결과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아동 자체에 대한 평가로 확장된다고 하였다. 또한 능력 경쟁은 유아가 활동과정 자체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즐거움을 느끼

는 것보다는 이기고 지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상대적 비교에 의한 만족감을 추구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들이 활동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승패의 결과보다는 즐겁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활동하는 모습에 대해 강화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경쟁은 누구나 실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승리자에게도 일시적인 만족감만 불러일으킨 채 또다시 누군가를 이기려는 욕구만 조장할 수 있게 되므로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도록 교사가 중재하고 모든 유아들의 능력이 존중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또래관계에서 능력에 의한 부당한 차별대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들은 소유권을 가지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는데, 소유권 확보, 소유권 쟁탈, 소유권 확대에 관한 문제였다. 한정된 물질자원을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거나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쟁탈하려는 모습 속에서 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소유욕을 경쟁적 상황이 더 강하게 자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쟁행동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교사는 충분한 자원을 마련해줌으로써 경쟁상황을 완화시켜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쟁적 상황에서 정당한 대결, 협력, 양보 등의 건설적인 방법을 통해 유아가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주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충분한 물질자원이 마련된 상황에서 보다 많이 차지하려는 모습은 소유물에 대한 획득요구와 더불어 상대적 비교를 통한 우월감 및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타인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타인과 사이 좋게 공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에 더 만족할 수 있도록 교사의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또래관계에서 상대가 없는 혹은 상대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쟁은 자신이 상대보다 우월하다는 자의식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와 더불어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신의 열등감을 축소시키거나 은폐하려는 욕구와 상관있는 우쭐심리(최상진 외, 1997)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경쟁은 유아들이 서로의 경험에 대해 의견을 나눔으로써 가질 수 있는 간접적인 경험의 기회를 방해하게 되고 오히려 상대와의 비교에만 관심을 두게 되어 상대적 우월심리나 위축심리의 결과만 낳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는 우월자체보다 우월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되는 부러운 시선에 대한 만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최상진 최, 1997). 이러한 심리적 태도는 남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부심이 아닌 자만심을 갖도록 하므로, 교사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상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줌으로써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모델을 제시해 주고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유아들은 이미 확보한 자원의 양, 즉 소유량을 놓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소유량은 유아들의 비교 척도가 되었고, 열등감 극복 및 우월감 확보를 위한 내용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다보니 경쟁상황에서 실제로 자신이 소유한 양을 나타내기 보다는 상대방보다 우월할 수 있는 소유량을 제시함으로써 상대와의 비교를 통한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즉, 소유량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도 상대적인 소유량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우쭐심리와 관련하여 허세를 부리는 태도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쟁 경험은 비교심리를 부추이게 되어 유아들의 사회적 관계에 경계심, 긴장감을 가져오며 소유욕을 자극하거나 쉽게 만족을 못하는 태도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교사의 상대적 비교에 의한 평가가 아닌 절대적 기준에 의한 평가를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재미와 흥미를 추구하는 유아들의 특성은 경쟁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재미와 흥미를 추구하는 유아들의 욕구에 비해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시간적 요소에 영향을 받으므로 제한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때문에 먼저 하고자 겨루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순서개념과 연관되어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으로 복잡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자신의 욕구뿐 아니라 타인의 욕구도 중시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공정하거나 이타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도와줌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유아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애정을 두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는데 친한 친구나 좋아하는 이성을 두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애정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은 타인을 경쟁상대로 보고 경계하거나 배척하는 태도로 나타났으며 애정의 상대에겐 남들보다 친근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쟁관계에서는 경계의 대상이 되는 유아들에게 심리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지만 유아가 또래관계에서 은밀하게 보여주는 심리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또래관계에 대한 교사의 세심한 주의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일곱째, 유아들은 참여기회를 놓고 서로 겨루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로 한정된 기회를 두고 참여하기 위해서, 상대방보다 좀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보다 좀더 유리한 기회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쟁은 유아의 참여요구 뿐만 아니라 또래유아의 다수 참여에 대한 동조심리가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유아의 참여기회에 대한 요구는 교사가 어떻게 적절히 활용하느냐에 따라 활동에 대한 흥미로 이어질 수도 있고 경쟁결과에 의해 참여에 대한 포기나 거부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덟 번째, 유아들은 인기있는 역할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하였는데 크게 극놀이와 같은 놀이상황에서 배역을 차지하고자 하는 경우와 생활 속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일을 두고 서로 하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경쟁을 통하여 유아들은 자신과 유사한 욕구를 지닌 사람들이 사회 속에 있음을 인식함과 동시에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은 인정되는 범위에 한해서 수행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가 경쟁으로 인해 타인을 자신의 역할을 방해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동료로 여길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분담의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이 좋겠다.

아홉 번째, 유아들은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서 서로 경쟁을 하였다. 인정을 받는다는 일은 사회적 수용과 사회적 일체감을 얻으려는 노

력으로(김유진·임충기, 2002)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이에 유아들은 주로 자랑하기, 우쭐대기와 같은 방법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자 하였으나 그 외에도 또래와 같은 비교상대를 두고 자신을 부각시키는 경쟁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상대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경쟁은 상대방이 자신보다 나아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므로 자신의 고유영역을 보존하여 독창적인 면을 부각시키거나 아예 상대방보다 우위를 점령함으로써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일어난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은 발전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지나친 경쟁은 자칫 이기적인 모습으로 인해 인간관계에 손상을 주거나 상대적 비교에 집중하는 태도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교사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유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 아결 어린이집 이슬반의 또래간 경쟁에 있어서 유아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슬반 유아들은 경쟁상황에서 목표를 획득하기 위해 각기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그 성격에 따라 대결, 협박적 언행, 과장된 언행, 물리적 힘 행사, 설득, 속임수 사용, 협력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대결 전략은 경쟁상황에서 공정하게 겨루기, 다른 경쟁거리 제시하기, 고집부리기, 민첩하게 움직이기 등을 통하여 상대방과 맞서 승패를 결정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이슬반 유아들은 경쟁상황에서 양보를 통해 칭찬을 받는 것보다 대결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획득하는 것에 더 만족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러한 강한 욕구는 공정한 대결에 있어서도 엇볼 수 있었다. 즉, 타인에게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자신에게는 좀더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대결 결과에 있어서도 쉽게 승복하지 못하는 태도가 나타났다. 단, 교사가 옆에 있을 때는 경쟁의 결과에 마지못해서라도 승복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서 경쟁상황에서 교

사의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희진, 이지현(2002)은 갈등상황에서 유아들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해결을 위해 교사와 같은 성인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하고 타율적 도덕발달상에 있는 유아기의 특성으로 인해 유아들은 경쟁상황에서 자제심을 잃기가 쉽고, 그에 따라 공정한 대결조차 불공정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사는 경쟁상황에서 유아들이 보다 정당한 대결을 하고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을 할 줄 아는 태도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대결전략은 정당한 방법이라 할 지라도 강한 승부욕을 낳을 수 있으므로 대결에 앞서서 양보를 통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교사의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대결에 있어서 승부에 집착을 하다보면 ‘고집부리기’와 같이 상대방의 요구를 무시하고 방해하는 행동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에 손상을 가져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로 하여금 자신과 유사한 또래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돕고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선의의 대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유아들의 경쟁전략 가운데 ‘민첩한 움직임’은 우선권이 인정되는 한정된 상황 속에서 그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기준이 ‘속도’라는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습득된 전략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은 경쟁하면서 살도록 양육되고 훈련되어왔다고 한 Kohn(1992)의 주장과 관련하여 유아들의 경쟁이 발달특성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영향 속에서 적응의 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둘째, 경쟁상황에서의 ‘협박적 언행’ 전략은 상대방 약점 찌르기와 말로 협박하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전략은 상대방의 세력을 약화시키거나 상대가 욕구에 대해 포기하도록 만들자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대방의 입장, 관점 또는 견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유아의 조망수용능력을 인정한 Selman(1990)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유아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함으로써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약화시키거나 제거함으로써 자신이 목표물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

같은 효과가 있으나,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위축감, 불안감, 보복심, 자존심 손상 등을 가져올 수 있고 상호간에 의심과 불신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약점을 공격하여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전략보다는 설득과 같이 자신에게 유리하면서도 정당하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말로 협박하기’의 경우 사용형태에 따라 두 가지 다른 결과를 보이게 되는데 위협적인 존재를 등장시키는 협박은 전략을 사용한 유아의 세력을 키우는 효과가 있으므로 성공할 확률이 높은 반면, 상대방의 욕구 저지와 관련된 협박은 상대의 욕구 및 마음상태에 대한 파악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유아들에겐 실패 확률이 높다 하겠다. ‘말로 협박하기’는 일종의 심리적 공격으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게 되므로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셋째, ‘과장된 언행’은 행동적인 면과 언어적인 측면으로 나타나는데 주로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과장하기를 볼 수 있었으며 행동적인 면은 언어적 측면에 가미된 형태로 볼 수 있었다.

유아들은 상대보다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한 간접적인 표현방식으로 과장하기를 사용하는데 상호간에 사실과 다른 정보의 제시는 거짓말이 아니라 상대를 능가하기 위한 부풀려 말하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시작하므로 그 이면의 의미를 파악함을 전제로 겨루게 된다. 그러나 우월을 목적으로 한 과장하기는 자칫 허풍떨기나 거짓말하는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전략은 상호간에 반복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특별히 어느 한 쪽이 다른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한 목표달성의 결과에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대부분 흐지부지한 결말을 낳게 된다.

넷째, 유아들은 경쟁상황에서 신체나 사물을 공격하는 ‘물리적 힘 행사하기’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신체에 힘을 행사하는 경우, 밀기, 막기, 때리기 등으로 나타났으며 사물에 대한 힘 행사는 경쟁대상이 되는 목표물을 빼앗는 행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략은 경쟁자의 행위를 방해함으로써 자신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으로 이 때 경쟁자가 자신보다 힘이 세거나 교사와 같이 권력을

가진 제 3자의 도움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승리의 결과를 얻게 되므로 유아는 자제력을 잃고 이와 같은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전략이며,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므로 교사의 철저한 지도가 요구된다.

다섯째, ‘설득’전략은 권한 주장하기와 협상하기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상대방을 이해시킴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정당성을 지닌 방법이다.

상대방을 설득한다는 것은 상대가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유아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회적 인정기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은 유아의 논리적 사고의 기회를 부여하며, 공정한 경쟁 태도를 통해 상대방의 인정과 더불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협상하기’는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반영하여 설득해야 하는 전략으로 조망수용능력이 미숙할수록 결과가 계획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 유아들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속임수를 사용한다는 박성주(2001)의 결과와 일치하기도 한다. ‘속임수 사용’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호 배타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유아에게 있어서 유혹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반복될수록 유아에게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지도록 만들 수 있고, ‘속임수 사용’이 가져오는 승리의 결과에 오히려 강화될 수 있으며 상호간에 의심과 불신감을 갖게 하여 관계에도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경쟁상황에서 ‘속임수’와 같은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결과보다는 정정당한 과정을 강조하고 유아의 생활지도에 있어서 도덕·윤리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 번째, ‘협력’은 유아들 사이에서 경쟁의 한 전략임을 볼 수 있었다. 유아들은 자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경쟁상대와 혹은 자신과 같은 편과 협력을 하였는데 주로 교사의 안내나 경쟁상황의 구조에 의해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유아 스스로에 의한 협력은 자신이 불리한 입장에 있을 때나 경쟁결과보다 협력에 의한 결과가

더 만족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 나타났다.

이처럼 협력은 개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행동을 조합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Nelson & Madsen, 1969)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상호간 목적을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경쟁상황에서 상호관계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패자가 없고 모두 승자라는 점에서 유아들의 자아개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들이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훗날 유아들의 이타적 행동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경쟁상황에서 유아들의 어떤 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경쟁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킬 수도 있다. 즉 경쟁이 싸움이나 거만, 거짓 등의 형태로 표출된다면 사회화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바람직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교사의 교육적인 지도가 뒤따른다면 경쟁을 통해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인의 욕구를 인정 및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자제심을 기르거나 공정하고 평등한 방법, 협력, 양보와 같은 바람직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B.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슬반의 또래 경쟁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자신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또래들과 능력, 소유권, 경험, 소유량, 재미·흥미 추구, 애정, 참여기회, 인기있는 역할, 인정의 내용으로 경쟁을 일으켰다. 사물과 같은 물질자원, 기회나 역할과 같은 비물질 자원, 애정이나 인정과 같은 정서적 자원 등의 제한된 자원을 두고 이를 획득하고자 하는 목표와 우월의 욕구, 열등감 보상, 비교를 통한 상대적 만족감 등의 다양한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표 사이에서 복합적인 내용으로 유아들의 경쟁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제한된 환경이 맞물려 일어나기도 하고, 비교심리와 같은 사회적 심리가 반영된 내용으로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이슬반의 또래간 경쟁에서 자신의 목표를 획득하고자 사용된 전략은 총 12가지 유형이 관찰되었는데, 그 성격에 따라 대결, 협박적 언행, 과장된 언행, 물리적 힘 행사, 설득, 속임수 사용, 협력하기 전략의 7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대결 전략에는 공정하게 겨루기, 다른 경쟁거리 제시하기, 고집부리기, 민첩하게 움직이기 등의 방법이 있었다. 정당한 승부를 합의한 상황에서 대결하는 유아들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공정함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은 좀더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또한 유아들은 자신이 좀더 우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도록 자신에게 유리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상대방이 포기할 때까지 방해 작전을 펴는 고집부리기 행동이나 속도를 요구하는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습득된 재빨리 행동하기 전략도 볼 수 있었다. 유아들의 협박적 언행 전략으로는 상대방 약점 찌르기, 말로 협박하기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유아들은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약화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해 약점을 공격하였으며, 경쟁상대에게 위협이 될만한 제 3자를 끌어들이거나 상대방의 욕구를 제거하겠다는 엄포를 놓는 말로 협박을 하는 전략도 사용되었다. 또한 유아들은 상대보다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과장된 언행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경쟁자의 신체나 목표가 되는 사물을 공격하는 물리적 힘 행사하기 전략도 나타났다. 설득전략으로는 상대방에게 나름대로의 타당한 논리를 세워 자신이 목표를 획득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권한 주장하기와 경쟁 목표물 보다 상대에게 더 만족을 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는 협상하기를 볼 수 있었다. 한편 경쟁상황에서 부정행위의 전략도 볼 수 있었는데 유아들은 상대방의 미숙함과 같은 약점을 이용하여 속임수 전략을 사용하였다. 또한 경쟁전략의 하나로 협력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는데 유아들은 자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경쟁상대와 혹은 자신과 같은 편과 협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유아들의 경쟁전략 사용범위는 경쟁목표, 욕구의 정도, 조망수용과 같은 인지능력, 상황판단 능력, 상호작용기술과 같은 사회적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

으며 전략사용은 경쟁의 내용과 결과 그리고 상호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유아들은 경쟁상황에서 한 가지 전략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사용하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상황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전략을 단계적으로도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유아들이 또래와 벌이는 경쟁의 내용과 경쟁상황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사용에 대해 만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문화기술적 연구를 해봄으로써 유아들은 물질적, 정서적, 비물질적 자원에 대한 소유욕이나 비교심리, 열등감 보상, 우월감 획득과 같은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신과 유사한 또래와 경쟁을 벌이게 되며 이때 사용되는 전략은 경쟁목표, 욕구의 정도, 조망수용과 같은 인지능력, 상황판단 능력, 상호작용기술과 같은 사회적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경쟁의 내용과 결과 그리고 상호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밝히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그리고 유아들은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해 자기중심적인 전략뿐 아니라 조망수용능력이 요구되는 전략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경쟁을 위해 협력을 한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나아가 환경적 맥락을 고려한 유아의 경쟁모습과 의미에 대한 파악은 유아의 사회적 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반적인 또래 경쟁의 모습을 다각도로 관찰하다보니 유아들의 개별특성이나 관계에 따른 경쟁 모습을 제대로 살필 수가 없었다. 둘째, 본 연구는 경쟁이 일어나는 상황에 초점을 두어 관찰하다보니 경쟁결과 이후 유아들의 모습을 간과한 경우가 많아 경쟁내용에 따른 영향에 대해 좀더 자세히 기술하지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의 경쟁의 내용과 전략의 분석을 통해 유아들의 발달 특성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영향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그에 대한 집중적인 탐구를 하지 못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만 5세반인 이슬반에서만 이루어진 연구로 일반화시키는데 무리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들이 문화기술적 방법으로 이

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같은 경쟁 상황이라도 참여하는 또래의 관계나 또래의 특성에 따라 경쟁양상이 달라질 것이므로 이에 초점을 두어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경쟁이 발생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경쟁결과로 인한 유아들의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경쟁이 유아 자신과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유아들의 경쟁적 행동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려면 이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유아들의 또래간 경쟁에 어느 정도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는 만 5세반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유아들의 경쟁양상에 연령에 따른 차이도 작용할 것이므로 연령을 다양화해서 또래관계에서의 경쟁양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 문헌

- 김유진, 임충기(2002). **최신 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지현, 이순형(2004). 3세 및 5세 유아의 또래 갈등 상황에 따른 정서표현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2(4).
- 김진영(1998). 유치원에서 또래간 사회적 힘의 형성과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명훈, 정영운(1985). **심리학개론**. 서울: 박영사.
- 김민성(1993). 놀이 형태에 따른 아동의 심리반응 연구 : 경쟁적 · 협동적 놀이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관희(1996). 경쟁/협동상황에서의 4-5세 아동의 상호작용 관찰 연구. **아동학회지**, 17(1). 5-21.
- 김현정(2003). 우리나라 유아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훈기(2005). **(개정판) 심리학의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 김희진, 박혜영(2001). 유아의 요구의도 및 전략과 교사의 반응전략. **아동학회지**, 22(1). 213-226.
- 김희진, 이지현(2001). 유아의 연령 및 성구성에 따른 또래간 갈등의 양상. **교육학연구**, 39(2). 99-119.
- 민문홍(1996). 한국인의 사고방식. 일상문화연구회(편), **한국인의 일상문화 자기성찰의 사회학**. 서울: 한울
- 문용린(1988). **학교학습에서의 경쟁과 협동**. 이용걸 교수 정년기념저서. 학교학습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55-85.
- 박성주(2001). 푸른 유치원 만 4세 유아의 또래간 사회적 힘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수진(2001).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조기/특기교육에 관한 실태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재환(2002). **한국과 일본의 일상생활**. 부산대학교 출판부
- 박윤호(1991). 아동의 협동성 및 경쟁성과 유아교육 경험유무와의 관련성. **아동교육**, 1(1). 59-74.
- 손영수(2001). 유아생활세계 연구를 위한 해석학적 탐구방법에 대한 고찰. **영유아교육연구**, 1. 139-165.
- 송명자(1997). **인간발달 연구**. 서울 : 학지사.
- 송혜영, 최보가(2002). 또래갈등상황에서 아동의 책략, 목표 및 또래 수용. **대한가정학회지**, 40(11).
- 신건호(1998). 인간관계 유형과 사회적 행동.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6
- 신성수(1992). 경쟁심이 외국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웅진(1995). **유아발달 심리학**. 서울: 문음사.
- 우남희, 현은자, 이종희(1992). 사설학원과 가정중심의 조기교육 실태 연구. **유아교육연구**, 13(1)
- 윤내현, 한상길, 황필홍(1999). **홍익인간과 세계의 이해**. 단국대학교 출판부.
- 이만갑(2004). **자기와 자기의식**. 서울: 소화.
- 이지영(1997). 또래관계에서 사용하는 유아의 사회적 문제해결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2001). 어머니의 온정 및 통제와 유아의 애착 안정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9(6).
- 이현송(2001). 소득과 전반적 삶의 만족 간의 관계: 욕구이론과 비교이론의 대비. **노동경제논집**, 24(1). 231-251.
- 이형득(1984). **상담의 이론적 접근**. 서울 : 형설출판사.
- 이희승 편저(1976).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 임성혜, 손영수(2001). 유치원에서의 유아생활세계의 긴장과 갈등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 **유아교육연구**, 21(2). 85-109.

- 정문성, 김동일(1988). **열린교육을 위한 협동학습의 이론과 실제**. 서울: 형설출판사.
- 정용교(2001). 문화기술지. **초등교육연구논총**. 17(2).
- 정진·성원경(1994). **유아놀이와 게임활동의 실제**. 서울: 학지사.
- 조영화(2004). 또래 간 칭찬하기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대인문제 해결 사고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차나림(2003). 매화반 유아들의 또래 갈등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기영(2002). 집단게임에 나타난 유치원 아동의 경쟁성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6(2). 153-172.
- 최상진, 박정열, 이장주(1997). 한국인의 우쭐심리. **한국심리학회**. 553-573.
- 최재석(1976).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 한국어사전편찬회 편(1987). **국어대사전**. 서울: 교육도서.
- 한국행동과학연구(1984).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집**. 서울: 문교부.
- 한영춘, 권기성(1980). **행정학 개론**. 서울: 법문사.
- 한제인(1994). 아동의 사회 측정 지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사용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성열(2004). **사회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주).
- 홍용희(1998).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교육연구의 질적접근, 그 방법과 쟁점. **교육인류학연구회 1998년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33-51.
- Adler, Peter. (1972). *Culture shock and the cross cultural learning experience*. Readings in Intercultural Education, Vol. 2. Pittsburg : International Communication Network.
- Bogdan, R. C. & Biklein, S. K. (1991). **교육 연구의 새 접근**(신옥순 역). 서울: 교육과학사. (원서 1982 출판)
- Bogdan, R. & Biklein, S. (1992). *Qualitative research of education*. Boston : Allyn and Bacon.

- Bruner, J. S. (1986).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 Cartwright, S. (1993). Cooperative learning can occur in any kind of program. *Young Children*, 48(2), 12-14.
- Charlesworth, W. R. (1988). Resources and resource acquisition behavior during ontogeny, In K. Macdonald(ed.). *Sociobiological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pp 42-117). Springer Verlag.
- Charlesworth, W. R. (1993). Cooperation as Competition: *Contributions to a developmental and evolutionary model*.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innesota.
- Coopersmith, S. (1976).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Corsaro, W. A. (1985). *Friendship and peer culture in the early years*. Norwood, NJ: Ablex.
- Day, B., Leeper, S., & Witherspoon, R. (1984). *Good Schools for young Children(5th Ed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 Deutsch, M. (1949). The Effect of Cooperation upon Group Process. *Human Relations*, 2, 129-152.
- Domino, G. (1992). Cooperation and competition in chinese and american childre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3(4), 456-467.
- Easterlin, R. A. (1995). Will Rasing the Income of all Increase the Happiness of Al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27(1), 35-47.
- Eisenberg, A., & Garvey, C. (1981). Children's use of verbal strategies in resolving conflicts. *Discourse Processes*, 4, 149-170.
- Festinger, L. A.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 Goetz, J. P., & LeCompte, M. D. (1984). *Ethnography and Qualitative Design*

In Educational Research. Academic Press. Inc.

- Halloran, J., & Benton, D. (1987). *Applied Human Relation: An Organizational Approach*(3rd Ed). p.3.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E.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104-196). New York : Wiley.
- Hartup, W. W. (1989). Social relationship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American Psychology, 44*, 120-126.
- Hartup, W. W. (1992). Having friends, making friends, and keeping friends: Relationships as educational context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58-954*).
- Howes, C. (1988). Peer interaction of young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of Child Development, 53*(serial no.217), 1-78.
- Hymel, S. A. & Woody, E. (1993). Aggressive versus withdrawn unpopular children: Variation in peer and self-perception in multiple domains. *Child Development, 64*, 879-896.
- Judith, E. & Andrew, F. (1983). Context and Companion's Behavior as Determinants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 in Schoolage Children. pp.1-4.
- Kagan, S., & M. C. Madsen. (1971). "Rivalry in Anglo-American and Mexican Children of Two-A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4*, pp.214-222.
- Kagan, S., & M. C. Madsen. (1972). Cooperation and competition of Mexican, Mexican-American, and Anglo-American children of two ages under four instructional sets. *Developmental Psychology, 5*, 32-39.
- Kamii, C. (1980). "Application of Piaget's theory to Education: The Preoperational Level." *In Piagetian Theory and Research: New*

Directions and Applications, pp.23-25.

- Karz, L. G. & McClan. (1991). The teacher's role in the social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46-988*).
- Kemple, K. M. (1991). Prescholl Children's peer acceptance and social interaction, *Young Children*, 47-54.
- Kemple, Kristen, M., & Hartle, Lynn. (1997). Getting along: How teachers can support children's peer relationship.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24(3), 139-146.
- Knight, G. P., Corta, M. K., & Bernal, M. E. (1993). The socialization of cooperative, competitive, and individualistic preferences among American Mexican-American, and Anglo-American children of two ages under four instructional sets. *Developmental Psychology*, 5, 32-39.
- Kohn, A. (1992). *No contest: The case against competition(revused ed.)*. Boston: Houghton Mifflin.
- Lewis, M., & Rosenblum, M. A. (1975). *Friendship and peer relations*. New York : Wiley.
- Madsen, M. C. (1967). Cooperative and Competitive Motivation of Children in Three Mexican Sub-Cultures. *Psychological Reports*, 20, pp.1307-1320.
- Madsen, M. C. & Shapira, A. (1970). Cooperation and competitive behavior of urban Afro-American, Anglo-American, Mexican American, and Maxican villag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 16-20.
- Madsen, M. C. (1971). Developmental and Cross Cultural Differences in the Cooperative and Competitive Behavior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igy*, 2, 365-371.

- Margaret. Mead. (1937). *Cooperation and Competition among primitive peoples*. New York: Mc Grow. Hill Book Co.
- McGill, J. (1984). Play for play's sake: Cooperative games as a strategy for integration.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76175*.
- McClintock, C. G. & J. M. Moskowitz. (1976). "Children's Preferences for Individualistic, cooperative and competitive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pp.543-555.
- Mead, M. (1961). Cooperation and competition among primitive peoples. *Boston: Beacon*, 1(19), 458-511.
- Michalos, A. C. (1985). Multiple Discrepancies Theor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4), 347-413.
- Miller, J. (1993). Learning from early relationship experience. In S. Duck(Series Ed), *Understanding relationship process: Vol. 2. Learning about relationship* (pp. 1-29). Newbury Park: Sage.
- Nelson, L., & Madsen, M. C. (1969). Cooperation and competition in four years old as a function of reward contingency and subculture. *Developmental Psychology*, 1, 340-344.
- Orlick, T. D. (1978). *The cooperative sports and game book: Challenges without competition*. New York: Pantheon Books.
- Orlick, T. D. (1981). Positive socialization via cooperative games. *Developmental Psychology*, 17(4), 426-429.
- Ormrod, J. E. (1999). *Human learning(3rd. ed.)*. New Jersey: Prentice-Hall.
- Owen, L. (1987). Cooperation.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Great Britain: Wheatone & Co. LTD. 345-349.
- Perry, D.,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Pepitone, E.(1980). *Children in Cooperation and Competition*. Lexington,

- Mass: Lexington Books.
- Peshkin, A. (1988). Understanding complexity: A gift of qualitative inquiry. *Anthropology & Education Quarterly*, 19(4), 416-424.
- Piaget, J. (1962).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trans. M. Gabain. New York: Collier Books.
- Piaget, J. (1974). *The language and thought of the child*. New York: Meridan.
- Putallaz, M., Hellstern, L., Sheppard, B. H., Grimes, C. L., & Glodis, K. A. (1995). Conflict, social competence, and gender: Maternal and peer context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6(4), 433-447.
- Putallaz, M., & Gottman, J. M. (1981). An interactional model of children's entry into peer groups. *Child Development*, 52(3), 986-994.
- Rosenberg, M., & Leonard. I. Pearlman. (1978). Social class and self-esteem among children and adul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 53-77.
- Schneider, D. J. (1976). *Social Psychology*.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Selman, R. L., & Schultz. L. H. (1990). *Making a Friend in Youth*.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erif, C. W. (1977). *The Social Context of Competitio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Spradley, J. p.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 Stake, R. E. (2001). **질적 사례 연구**(홍용희 · 노경주 · 심종희 역). 서울: 창지사. (원서 1995 출판).
- Swensen, C. H. (1973). *Introduction to interpersonal relations*. Glenview, III : Scott, Foreman & Co.
- Vygotsky, L. S. (1962). *Thought and language*(eds, & trans. E. Hanfmann &

G. Vaker). Cambridge. MA: MIT Press.

Youniss, J. E. (1980). *Parents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A Sullivan-Piaget perspective*.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부 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사 형식>

본 연구는 Hong(1995)의 연구를 참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전사 형식을 만들어 적용하였다.

1. 굴림체의 글자체(글자크기 9포인트)는 연구대상자들이 한 말들을 의미한다.
2. 화자(話者)의 가명을 먼저 기입하고 콜론(:)을 한 다음에는 발언한 대화내용을 적었다.
3. []안은 연구 대상자들의 상황을 묘사한다.
4. ()는 연구 대상자들의 행동을 의미한다.
5. (중략)은 전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해석에 불필요하므로 중간 부분의 자료를 생략한 경우에 사용한 용어이다.
6. 대화 중 “.....” 표시는 화자가 방해를 받았거나 말을 멈춘 것을 나타낸다.
7. 대화 중 “~”는 말소리가 길어졌음을 뜻한다.
8. ‘유아’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목소리를 나타낸다.

ABSTRACT

A Study on The Peer Competition in 5 Aged Children: An Ethnographic Study

Park, Ji-Hyu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about various aspects of peer competition among children and its strategies. By ethnographic approach based on age 5 children-oriented participant observation and depth interview, contents of competition, the strategy of win toward peer competition were thoroughly discussed in this thesis.

Fore this purpose, the research questions established in this study are following:

1. What is the content of peer competition in Iseul Class at Agyul Day-care?
2. Which strategy is used by the preschool children in Iseul class in Agyeol Day-care for competition?

This study was performed in the class of age 5 in Agyeol Day-care located at G district in Seoul, and the subjects were 42 children and 2 teacher from an Iseul class. Preliminary observation conducted from July

11th to 16th, 2003 by three participant observations, and 30 times of data collection conducted from July 18st to September 29th, 2003. Formal interviews with teachers were conducted twice, while informal interviews were made occasionally.

While observing and interviewing, a researcher framed transcription by using field note, record, and video taping, and then interpreted the data based on the transcription. In addition, the researcher surveyed the some of the documents on the kindergarten management, and collected useful information for our understanding the class management such as time schedule, socio-demographic data, and familial background of the participants. As Bogdan and Biklen(1982) indicated, those collected cases were analyzed by encoding and categoriz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as a result of examination how the Iseul class children competed with peers, it was found that they competed with peers for ability, ownership, experience, volume of one's possession, pursuit of interest and entertainment, affection, opportunity to participate, popular roles, and recognition. Children competed for the limited resources including tangible resource like objects, intangible resource like opportunity and roles, and emotional resource like affection and recognition, in a rather complex manner between the goal to achieve the above-mentioned resources and the goal to fulfill various psychological needs such as desire for superiority, compensation for inferiority, and relative satisfaction through comparison.

Second, the strategies used by the children in Iseul class to achieve the goal in competition were total 12 kind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rategies, they were classified into 7: confrontation, intimidating language

and behavior, exaggerated language and behavior, exercising physical force, persuasion, use of tricks, cooperation.

The scope of using the competition strategy for the preschool children was varied by goals of competition, degree of needs, cognitive capacity such as perspective reception, ability for situation analysis, and social ability such as interaction technique. The use of strategy influenced the contents and results of the competition, and the quality of the interaction. Furthermore, the preschool children used not a single strategy but multiple strategies in competition, and they also applied systemic strategies in each step based on the situation.